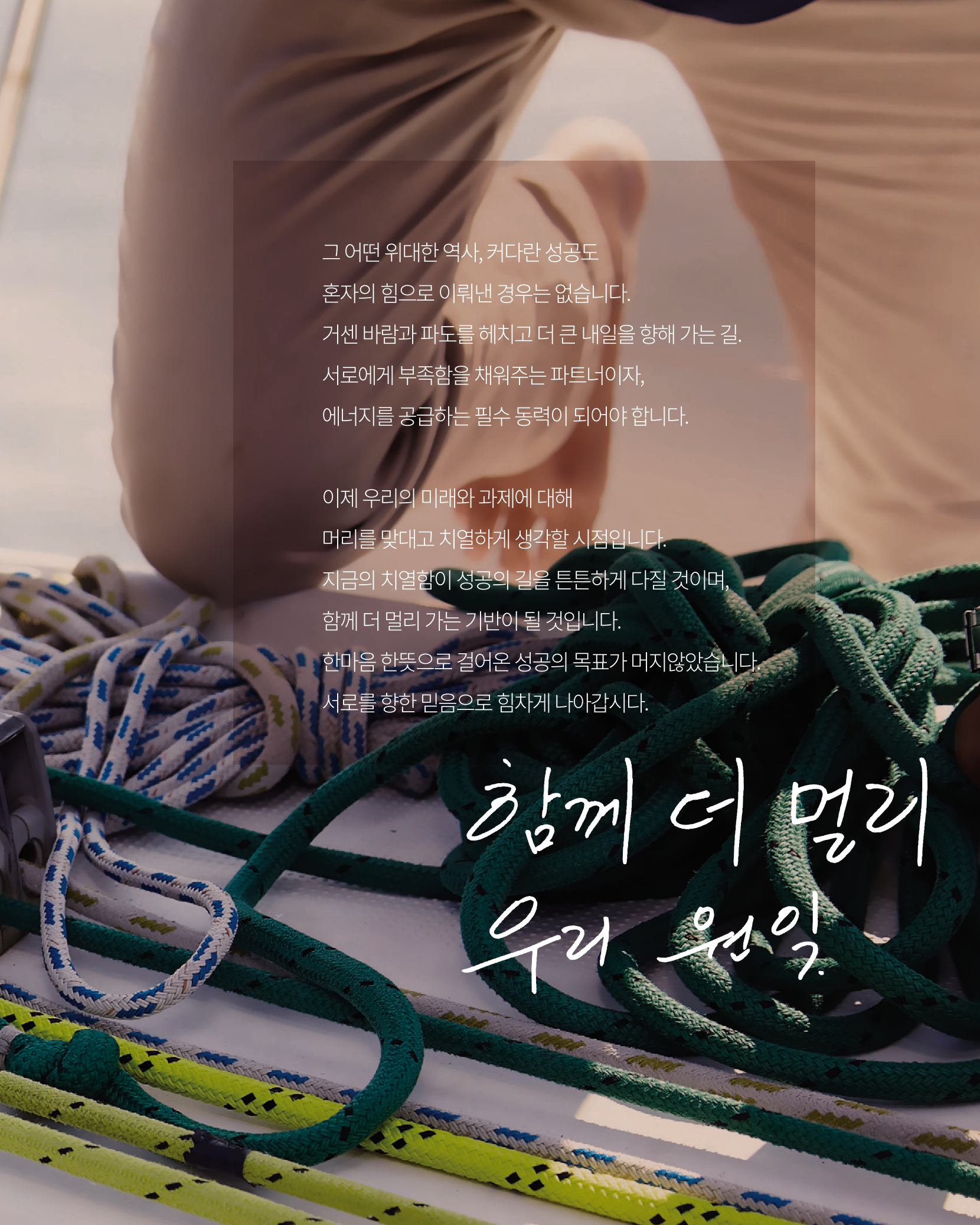


WONIKIN

WINTER

우리,
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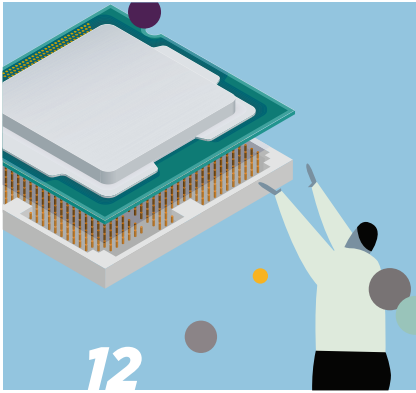
WONIK GROUP MAGAZINE
2018 VOL. 53



그 어떤 위대한 역사, 커다란 성공도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경우는 없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더 큰 내일을 향해 가는 길.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파트너이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필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생각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치열함이 성공의 길을 튼튼하게 다질 것이며,
함께 더 멀리 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온 성공의 목표가 머지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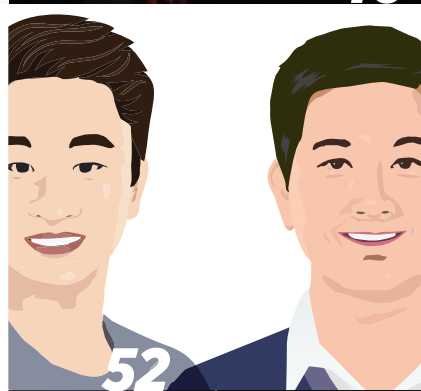
함께 더 멀리
우리 원일.



원익그룹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안예인 ·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 원익큐엔씨 이민희 · 테라세미콘 최예란
원익 이기복 · 원익큐브 윤세련 · 씨엠에스랩 박지현 · 위닉스 안희태
원익로보틱스 윤준호 · 원익엘엔디 조만현 ·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 기획조정실 이호철 서재원

WONIK iN

WONIK MAGAZINE
#53 WINTER 2018



원익 사보 2018년 겨울호 원익인 통권 제 53호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디자인연구소 퍼플페이지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04 **NEW YEAR'S LETTER**
함께 도약하는 우리, 원익
- 08 **SPECIAL THEME**
나와 너, 우리는 원익을 가꾸는 농부
- 12 **BETTER TECH**
모든 것이 결국 반도체로 귀결된다
- 16 **WONIK WORLD**
그 장면처럼 걸어보는 타이완
& 원익퀵츠타이완
- 22 **북 라운지**
마음을 열고 욕망이 흐르게 하라
Book_ 익숙한 것과의 결별

DEEP

- 28 **BOSS VS LEADER**
훌륭한 리더
- 36 **WONIK HERO**
함께 꿈꾸고 함께 실현하자
테라세미콘 이승호 상무
- 40 **밥 한 번 먹어요**
다시 만나 반가운 여섯 사람의 정찬(正餐)
- 46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홀딩스 이승현 부장 & 강한목 대리
- 48 **그웨이팅 팀**
서로의 개성으로 빈틈없이 메우다.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BM팀
- 52 **멘토링**
우리는 소울 메이트
테라세미콘 김승한 대리 & 김한별 대리



- 56 **원익 덕후**
한 것을 위한 움직임
원익아이피에스 김형철 사원



WIDE

- 64 **원익은 지금 ①**
2018 원익 사무식
- 70 **원익은 지금 ②**
더 큰 세상을 향한 원익의 힘을 펼쳐다
2018 세미콘 코리아
- 76 **원익은 지금 ③**
있는 힘껏, 바다를 가르고 달려라!
공채 3기 Retention 프로그램 - 요트 세일링
- 82 **원익은 지금 ④**
새로 시작하는, 나는 원익 신입사원입니다
2018 원익 대졸 공채 4기 입문 교육
- 88 **원익은 지금 ⑤ 원익아이피에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포차차
- 92 **원익은 지금 ⑥ 원익큐엔씨**
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우리
- 98 **원익은 지금 ⑦ 씨엠에스랩**
하나로 뭉쳐 만든 우리만의 '힐링타임'
- 104 **원익은 지금 ⑧**
WONIK과 함께 행복 더하기
- 108 **명작예찬**
깊이 있는 서정의 올림
- 110 **NEWS FOCUS**
- 126 **사내기자단**
- 127 **EDITOR'S LETTER**

함께 도약하는 우리,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의 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승진하신 임직원분들, 원익인상 수상자분들 그리고 올해 입사하는 공채4기 신입사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경영성과를 달성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계열사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시장성장의 도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분들에게
그 공을 돌립니다.

그러나 비반도체 계열사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래의 준비를 착실히 하였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와 준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몇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부문은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글로벌업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 영업지점을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글로벌
인재의 영입과 구성원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특정고객에만 의존하는 단일한 영업관행을 탈피하여 해외 고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고객 다변화를 지속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시장의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익, 모두에게 희망이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2000년대 디지털혁명이 많은 기업들의 명운을 갈랐듯이 4차 산업혁명 역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를 읽고 바이오, 로봇, 음성인식 분야에 투자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대상과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더욱 극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분출될 수 있는 창의, 도전, 열정의 조직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 혁신'과 '협업'이 충만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과 스마트 워킹을 체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조직 간 벽에 갇혀있지 않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이 조직에 축적되고 상호 영향을 주며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배려, 경청의 자세로 소통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어 일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사 리더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이전에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평가와 보상제도를 확실히 만들도록 하여 정의로운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며, 특히 경제는 혼란스럽습니다. 미약하지만 우리 원익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작은 희망의 촛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원익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원익 회장 이용한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노력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그룹의 핵심가치와 함께,
열린 마음과 열린 사고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익홀딩스 대표이사 이재현

지난 연말 2017년의 놀라운 성적표를 보면서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3년 전 우리 모두가 몰두하여
완성한 회사의 비전(corporate vision)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가 해왔던 여러 방면의 노력이
그 Vision Tree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이건 형식적인 것이야'라고 치부하였던
비전을 다시 꺼내어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삼아야겠습니다.

원익큐엔씨 대표이사 임창빈

꿈꾸는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2018 변화와 개혁을
위한 원익 가족의 염원을
 담은 신년 메시지

앞으로 가슴 설레는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장 DNA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다 함께 같은 목표,
같은 길을 향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한우성

올 한 해는 자신감을 갖고
각자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어진 목표와 역할을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만듭시다.

테라세미콘 대표이사 이재경

항상 강조하는 Pro - Active, Communication,
Innovation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올 한 해도 멋지게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갑시다.

원익아이피에스 대표이사 이현덕

궁극통(窮則通) 즉, 궁하면 통한다.
세상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다. 단지 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변화를 추진합시다.

원익 대표이사 백상천

즐겁게 일하면서 더불어 성과도
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보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익큐브 대표이사 오영신

“시장에 중심을 둔 핵심역량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자”

경청의 자세로 도전하는 사내문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서비스 로봇 출시 목표를 달성하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원익로보틱스 대표이사 장경석

원익 가족으로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는 한편,
고객에게 인정받는 브랜드 만들기과 회사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회사 만들기에
함께 힘써 나갑시다.

씨엠에스랩 대표이사 이진수

우리가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려와 노력으로 내 옆에 있는 동료의 행복감을
느꼈을 때, 나의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나의 배려와
노력으로 고객이 만족했을 때, 나의 행복은 더 깊어질 것입
니다. 원익은 여러분의 일터이며, 여러분의 꿈을 키우
고 실현하는 공간인 동시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원익엘앤디 & 하늘물빛정원 대표이사 이재천

우리는 힘겨운 여정을 함께 해 왔습니다.
어려움속에서 동료애로 극복해 왔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질주하는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닉스 대표이사 장홍식

올해는 웅비와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경영목표를 향해 어떠한 고난도 무릅쓰고 매진하는
여러분의 기상이 그 진면모를 발휘할 때입니다. 전진하는
자세로 올 한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원익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용성

나와 너,
우리는

원익을 가꾸는
농부

마른 땅에 거칠은 손을 대고
한줌 씨앗을 넓다랗게 뿌린다.
노력이 켜켜이 쌓인 흙으로 덮고,
발로 밟고 다지며, 흐른 이마의 땀을
훔치고 이제사 허리를 편다.
멀리 햇살에 반짝이는 세상을 내다보는
그는 농부다.

남다른 생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하며 갖춰나가는 Need,
배려와 소통을 가슴에 담고 자부심과
보람으로 가꾸는 Seed!

우리 안에 뿌리내린 무한 가능성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원익의 푸른 나무, 나와 우리에게서 출발한다.



이번 스페셜테마에서는 자유, 소통, 행복을 아우르는 ‘우리, 원익’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유

열린 사고와 실행력으로 이루자

흔히 장수왕의 평양 천도를 한국사의 여러 아쉬운 결정 중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 한반도로 좁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하고, 중국 세력이 겹나서 남쪽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의 사학자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평양의 입지 조건에서 찾고 있다. 산골짜기에 자리한 국내성은 천혜의 요새이지만 사람 살기에는 척박했다. 반면 평양은 수비하기에는 국내성보다 불리했지만, 대동강과 재령강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포를 통해 바다로도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또한 기름진 평양 남부의 평야는 많은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평양의 입지조건이야말로 천도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수왕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장수왕의 평양 천도처럼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며, 좁은 영역을 지키기보다 넓은 곳으로 뛰쳐나가 활발히 교류하고 경쟁하는 길을 선택하는 열린 생각. 그것은 위대한 발전에 필수적인 위대한 결정의 토대가 됐다. 마케도니아에서 벗어나 바빌론을 수도로 함으로써 진정한 동-서 융합 제국을 세우려 한 알렉산드로스나, 발트해 연안에 새로운 수도를 세워 서방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를 마련한 프트르1세의 생각도 그런 것이었다.

소통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자

어느 마을에 빵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 농부로부터 매일 버터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다. 하루는 농부가 가져오는 버터의 양이 미심쩍어 무게를 재 보았더니 역시나 조금 모자랐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화가 난 빵장수가 농부를 고소했는데 재판 결과 처벌받은 것은 오히려 빵장수였다. 농부가 진술하기를, 자신에게는 저울이 없기에 빵장수가 만든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추어 버터를 잘라 납품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손님에게 제공할 빵의 크기를 줄여 양을 속인 빵장수가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다.

이 빵장수처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따지면 조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고, 내가 소속된 조직,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된다. 지금 나는 농부인가, 빵장수인가? 공급되는 버터의 양을 탓하며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답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삶을 풍요롭게 사는 법

어부들이 그물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어부들은 그물이 무거운 걸 보고 수확이 좋으리라 상상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내보니 돌멩이와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다. 어부들은 예상이 뒤집혀 아주 난감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행복은 불행을 동생으로 두고 있나 보오. 우리가 먼저 너무 기뻐했다면 그 반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네.”

흔히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과 손등, 동전의 양면

이라고 말한다. 이 우화에서 어부들은 그물을 거두었을 때 돌멩이가 올라왔다며 마냥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돌멩이를 내다 버리고 그물을 정비한 후 다시 물속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이다. 그물을 던진 곳이 물고기가 많은 곳이라면 다시 그곳에 그물을 던질 것이고, 물고기가 없다면 잠시 실망하여 주춤하겠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열심히 고기를 찾아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진다. 수확의 많고 적음을 굳이 가릴 것 없이, 꾸준히 즐겁게 일한다면 복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것이 삶이다.

지금 팀워크에 공헌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지친 당나귀가 말에게 애원했다. “짐이 무거워 더는 못갈 것 같아. 조금만 들어줘.” 말은 못 들은 체했고 결국 당나귀는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말에게 모든 짐과 당나귀 가죽까지 올렸다. 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가벼운 짐을 나눠지기 싫어하다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게 됐네. 게다가 당나귀 가죽까지 말이야.”

이 우화에서 말은 당나귀가 힘겨워하는 것을 몰랐을까?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당나귀의 거친 숨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알고 있었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팀워크를 발휘해 짐을 나누어 짊어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 지금

부터라도 팀워크를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팀워크는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는다. 죽어버린 당나귀의 짐마저 져야 하는 말의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급에 관계없이 하루하루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우리 조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팀워크와 관련하여 나에게 기대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반복하며 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성장해간다고 가정해보자. 1년 후, 3년 후, 5년 후 우리는, 그리고 원익은 어떤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스스로가 질문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직업이나 직급, 나이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원익인 것이다. **W**

알토란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
잘 갈린 질 좋은 토양과 따사롭고 풍성한 햇볕
적당한 온·습도와 바람도 거스를 수 없고,
향기와 영양, 에너지를 부지런히 실어 나르는
벌·나비는 불러 모으고,
뿌리와 잎을 상하게 하는 벌레는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



자동화 산업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 전문 잡지 The SEMICON Magazine을 진행.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산업 전시회 SEMICON Korea와 SEDEX의 미디어 파트너로, 기업과 기업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글. 손수란 기자 The SEMICON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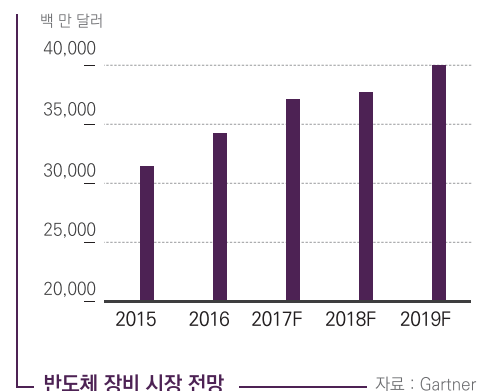
모든 것이 결국 반도체로 귀결된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 2018이 마무리됐다. 작년 CES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 자리였다면, 올해는 이를 발전시켜 AI와 미래형 자동차 진화에 집중된 기술이 소개되며 보다 상용화에 가까운 제품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

이처럼, 향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 판단, 추론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저장 장치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미세화 및 3D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다.

증착장비 시장의 지속 성장에 대한 높은 가시성

최근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주도한 분야 또한 3D NAND와 파운드리다. 3D NAND는 SSD가 요구하는 메모리 특징과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약 3400억 달러 수



ALD(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증착장비 응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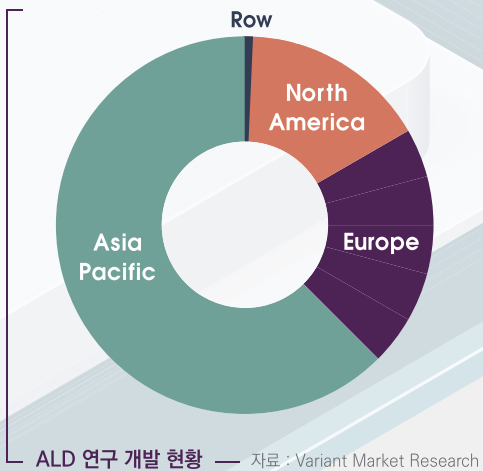


준이었으나 2017년 7% 성장하며 약 36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도체 장비시장 중 노광(Lithography), 증착(Deposition), 식각(Etching) 등 세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3D NAND 층수 확대에 따른 증착장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2016년 반도체 fab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시장이 연평균 6.9% 성장한 반면, 증착장비는 8.8% 성장하며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국내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증착장비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력 제품인 ALD(원자층증착장비)와 PECVD(플라즈마화학증착장비) 장비에 대한 수요가 다른 증착장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장비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얇게 더 얇게

반도체 소자 미세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ALD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ALD기술은 1980년에 Tuomo Suntola에 의해서 ALE(Atomic Layer Epitaxy)라는 기술로 개발됐다. ALE는 정밀하게 조성을 제어하면서, 얇은 막(100Å)을 증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당시에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가장 얇은 막은 1000Å 두께로, ALE 기술은 반도체 시장을 위한 기술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변했다. 반도체 칩 사이즈의 감소는 수 나노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가장 얇은 막은 원자 단위로 필요하게 되었다.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반도체에 적용되기 시작한 ALE는 ALD 기술로 이름이 변경되어져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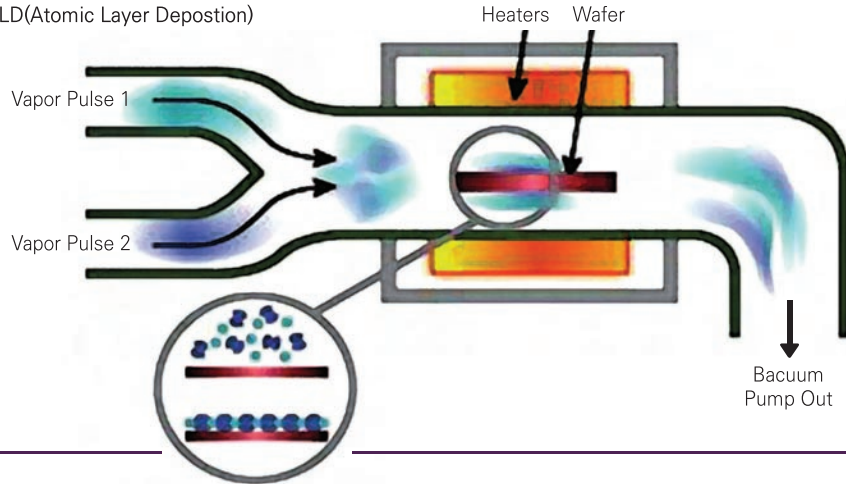
반도체 wafer공정 장비별 시장 규모 | 단위 : 백 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CAGR 2013~2016(%)
증착장비	5.635	7.023	6.898	7.250	7.765	8.014	
YoY 증가율(%)	(4.3)	24.6	(1.8)	5.1	7.1	3.2	8.8
식각장비	6.624	8.889	9.406	10.115	10.662	10.880	
YoY 증가율(%)	(10.1)	34.2	5.8	7.5	5.4	2.0	15.2
노광장비	6.496	6.994	6.105	6.288	6.750	6.953	
YoY 증가율(%)	(1.4)	7.7	(12.7)	3.0	7.4	3.0	(1.1)
기타장비	8.717	9.009	9.076	9.905	10.517	10.614	
YoY 증가율(%)	(10.9)	3.3	0.7	9.1	6.2	0.9	4.3
반도체 fab 장비	27.473	31.916	31.485	33.557	35.695	36.460	
YoY 증가율(%)	(7.3)	16.2	(1.3)	6.6	6.4	2.1	6.9

자료 : Gartner

ALD 연구 개발 현황

ALD(Atomic Layer De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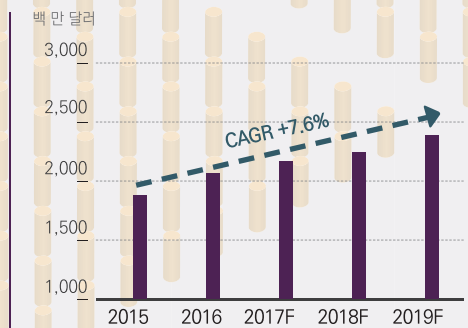
자료 : 원익아이피에스

ALD는 복잡한 형상의 3차원 구조에서도 뛰어난 균일도를 가지는 나노 두께의 박막 증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노급 반도체 소자 제조의 필수적인 증착기술이다. ALD는 CVD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낮은 온도에서 우수한 단차 피복성과 균일한 조성을 가지는 박막을 형성시킬 수 있고, 박막 내의 불순물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간당 막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ALD 기술을 실리콘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였지만, 반도체 소자의 미세화에 따라 두께를 얇고 정밀하게 제어해야 할 메모리용 유전막, 확산 방지막, 게이트 유전막 등의 수요가 많아져, 국내 반도체 기업과 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 반도체 기업에서 ALD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ALD 장비 시장은 29.1%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큰 만큼 국내외에서 신규로 ALD 시장에 뛰어드는 곳이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의 중추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 개발 역사도 긴 편이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ALD 공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나위가 없으며, 국내 장비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착장비의 ‘이유 있는 낙관론’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사물인터넷(IoT)의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의 증가 및 인공지능(AI), 5G 통신 환경 등 신기술 분야 접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IoT가 접목된 소비자가전 수요 증가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공정 미세화 및 3D NAND 층수 확대로 ALD와 PECVD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장비업체의 시장 점유율 상승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W**



세계 PECVD장비 시장 규모

자료 : Gartner



수줍은 첫사랑의
그 때

그 장면처럼
걸어보는 타이완



#1
나의 소녀시대

#2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내가 널 만난 것 자체가 이미 불가사의야’ 이토록 간지러운 대사도 오글거리지 않는 건,
그 따뜻함이 타이완과 너무도 잘 어울리기 때문일 거다.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지키며,
욕심 없이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 누구든 그 곳에 가면, 두근거렸던 첫사랑이 떠오른다.



유택화 마누라가 꿈인 평범한 소녀와 학교를 주름잡는 비범한 소년이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지도록 합동 작전을 편다. 서로를 섭섭하게, 혹은 설레게 하며 친구와 이성의 감정을 오가며 결국 서로가 첫사랑이 되어버린 이야기.

타이완의 찾향 슬슬, 신주Hsinchu

타이페이 역에서 구간차를 타고 마오리 방면으로 1시간 30분이면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기차역,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신주역에 도착한다. 청나라 때부터 자리를 지켜 온 고풍스러운 뚝문청을 비롯해 카메라를 췌기게 되는 호화스러운 리조트인 더원 호텔과 함께 두 주인공이 스케이트 연습을 하던 공원과 레코드샵이 자리한다. 레코드샵은 실제로는 라운지바이니 주의할 것. 특히 차의 도시인 신주는, 눈 닿는 곳마다 차밭이 있어 내내 코끝이 고소하다. 베이푸 차거리에서는 타이완 전통차인 '레이차'를 직접 만들 수 있다. 레이차는 땅콩과 깨, 녹차가루를 넣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의 미숫가루와 비슷하다. 대만드라마 <희환일개인>의 촬영지이자, 타이완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난리라고 항구도 꼭 들를 것. 자전거를 타고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면 정말 환상적이다.

열일곱, 소년은 늘 붙어 다니는 네 친구들과 동시에 한 여학생을 짝사랑한다. 문제아인 소년과 모범생인 소녀는 우연한 기회로 가까워지며 서툴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만, 사소한 갈등으로 결국 등을 돌리고야 만다.

타이중의 고즈넉한 소도시, 창화Changhua

남녀주인공이 작은 기차역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곳. 바로 타이중 남서쪽에 위치한 창화다. 타이중역에서 기차로 30분이면 도착하는 창화는, 주요 명소 모두 도보로 2~30분이면 도착할 만큼 소박하다. 높이 22m, 아시아 최대 크기인 빠파산 불상이 있는 빠파산평정치는 명절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타이완의 모든 도시에 있는 콩미아오(공자를 기리는 사당)가 고즈넉하고 옛스럽다. 일제점령기였던 1922년 지어진 산성치쿠는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부채꼴 형태의 차고다. 4량의 증기 기관차도 함께 보관하고 있어 작은 기차박물관 역할을 한다.

소원 적은 천등을 홀홀, 스펀Shihfen

총 길이가 12.9km 밖에 되지 않는, 시골길을 달리는 핑시선 기차. 석탄을 운송하던 노선이 12개의 시골마을을 잇는 관광기차로 부활했다. 그 핑시선 중 자타가 공인하는 하이라이트 마을은, 바로 스펀! 철로 한 가운데에서 소망을 꺾궂 눌러 적은 풍등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철길을 따라 30분 정도 걸어가면 파푸쑤, 대폭포가 나온다. 이름만큼 거대하진 않지만, 언제나 물의 양이 많아 실제 규모보다 더 크게 느껴지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아 더위를 식힐 것. 기차역 주위의 상점에서 파는 스모크 소세지 하나에 걷는 길이 행복하다.

#1

나의 소녀시대

“누군가에게 첫 물풍선을 던지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눈에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다.”



#2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넌 영원히 내 눈 속의 사과야”





터널 속 수상한 마을로 들어간 부모님은 돼지가 되어버리고, 겁에 질린 소녀에게 한 소년이 금지된 신의 세계임을 알려준다. 자신의 이름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는 소녀가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자 모험을 떠난다.

신선들의 놀이터, 우라이Wurai

타이베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28km. 가장 웅망스럽기로 유명한 원주민 타이야족의 오랜 터전, 우라이가 있다. 초록빛 오솔길을 걷다 나오는 붉은 다리에서 본 우라이의 모습이 영화 속 수상가옥으로 등장한다. 일제 식민지에 목재를 운반했던 미니기차를 타고 올라가면 높이 80m의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면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어 더욱 장관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낙원, 원시엔러위엔이 나온다. 거대한 생태공원인 이곳은 삼림욕과 식물원은 물론 사격장과 테마파크까지 갖춰져 있는데, 호수에 나룻배를 띄우고 누우면 그야말로 지상낙원. 여느 온천과는 달리 PH6.9의 무색무미 탄산온천도 빼먹지 말 것. 심장질환과 고지혈증에도 좋다.

타이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골목, 지우펀Jiufen

아주 오래 전, 아홉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마을에서 1920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탄광이 개발되었다. 광산업이 시들 무렵에는 1989년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인 <비정성시>가 촬영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동네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온에어>의 촬영지로 알려지기도.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골목 양옆으로 수많은 찻집과 음식점, 기념품 가게가 늘어진 지우펀은 현대적 도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감성이 있다. 특히 오후 5시 반에 일제히 켜지는 홍등을 보면 숨이 턱 막힐 지경. 영화 속 모티브가 되었던 수치루에 위치한 아메이 차치우관, 지우후차위 등 찻집에 자리 잡아 야경을 감상하면 영화 속 주인공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한 번 만난 인연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을 뿐이다.”



타이완 미각리스트! 이걸 꼭 맛봐야해



회귀

타이완식 샤브샤브. 각종 야채는 물론 버섯과 두부, 고기, 해산물, 완자, 생선 등 다양한 재료를 마음에 드는 육수에 넣어 먹는다. 개인 취향에 딱 맞추므로 실패할 확률이 없다.



딤섬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작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종합 선물세트. 투명에 가까운 만두피 안에 다소곳이 들어있는 소와, 입안에서 툭 터지는 육즙이 탄성을 자아낸다.



우육면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육개장의 중간 맛. 얼큰한 육수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소고기가 큼직하게 들어있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해 한국인에게 잘 맞는다.



망고빙수

이미 그 유명세가 대단한 망고빙수.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 부드러운 얼음 위에 큼직한 생망고가 수북하다. 그 위에 망고아이스크림까지 쳐.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의 지존이다.

펑리수

자타가 공인하는 타이완의 대표 간식. 조금 딱딱한 겉면에 의심하며 한 입 깨무는 순간, 입 안을 가득 채우는 파인애플 향에 나도 몰래 두 번째 봉지를 잡을 것이다.

전주나이차

밀크티에 쫄깃한 타피오카가 잔뜩. 우리가 흔히 '버블티'라고 말하는 음료다. 현지에서는 훨씬 더 진하고 고소하다. 얼음의 양과 단맛도 기호대로 조절할 수 있다.

탄고향창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 그 냄새에 홀리고 맛에 반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숯불 소세지다. 그 동안의 소세지는 잊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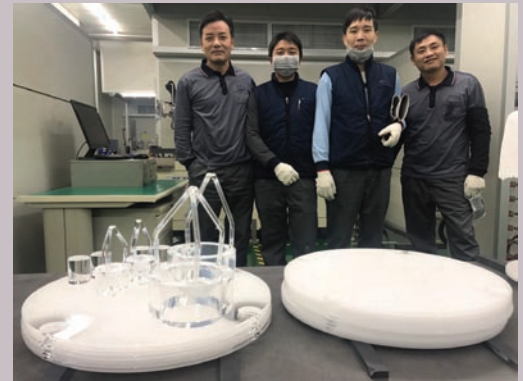
짜지

치킨은 언제나 옳다, 타이완에서도. 오직 후라이드 치킨만 지고지순하게 지켰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 어마어마하게 큰 치킨가스인 지파이도 맛이 훌륭하다.



원익쿼츠타이완(WONIK Quartz Taiwan, 이하WQT)은 1996년 설립된 원익의 첫 번째 해외투자법인이다. WQT는 타오위안공항에서 서남쪽으로 1시간 30분 떨어져있다. TSMC 본사가 있는 신주(Hsinchu)시와 대만 제2의 도시 타이중(Taichung)시 사이에 위치한 마오이(Miaoli)현 내 산업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농경, 주거, 공단이 혼재되어 있다. 인근의 도시에 비해서 보수적이라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연친화적인 곳이라 소박하고, 발걸음 닿는 대로 걸어도 바람에 날리는 색색의 공예품과 마을 풍경이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엽서 같은 곳이다. 특히 하우스 재배하는 딸기 농장이 무척 유명해, 인근 도시에서 체험을 하러 방문하기도 한

다고. 이토록 생활이 좋다보니 직원의 90% 이상이 마오리현에서 거주한다. 2018년 1월 기준 총 직원은 145명이고, 그중 한국인은 6명이다. 최근 호황인 반도체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 올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하였다. 올 해 역시 10% 이상의 성장은 물론 수익률 개선과 재고 감축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WQT 관계자는 현지 적응의 열쇠는 '이해'에 있다고 꼽았다. "먼저 타이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타이완)을 혼동하지 말고 하나의 독립 국가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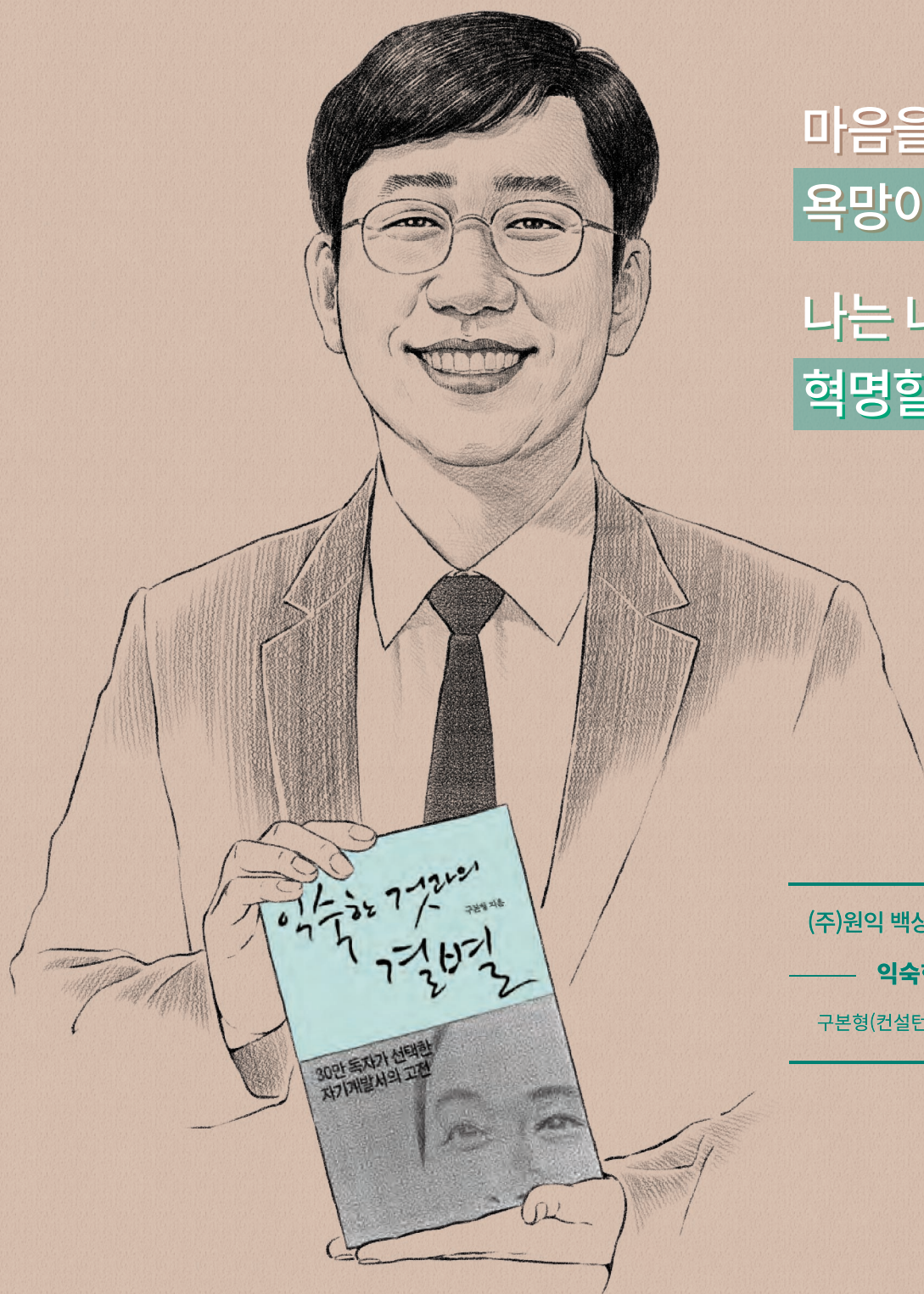


해야 합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를 존중하고 미숙하더라도 중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였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아시아의 불빛이 되고 싶습니다.” W

원익쿼츠타이완을 소개합니다

원익의 첫 번째 해외 투자
지역인 타이완, WQT의 성공은
‘나와 다른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WONIK QUARTZ TAIWAN
台灣圓益石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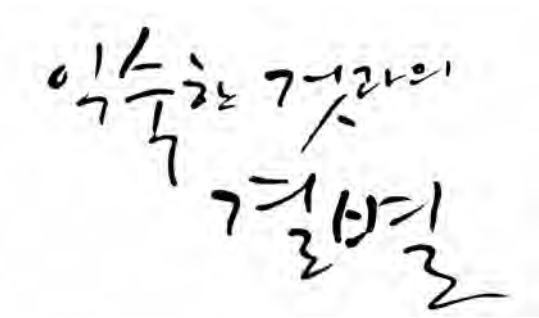
마음을 열고
욕망이 흐르게 하라.

나는 나를
혁명할 수 있다.

(주)원익 백상천 전무의 터닝 포인트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컨설턴트) 저 / 을유문화사 출판



신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 채찍을 쓰지 않는다. 신은 우리를 시간으로 가르친다.

- 발타자르 그라시안 -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할 때 낡고 오래된 것들을 버림으로써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듯이, 변화를 위해서는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하고 오래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한 전 직장을 떠날 당시 새 출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동기를 부여해준 준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 출발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는 원익인 첫 사보를 통해 변화를 추진하는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글. (주)원익 백상천 전무

저자소개

삶을 시처럼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시대 대표적 변화경영사상가

구본형(bhgoo, Bon-Hyung Goo, 具本亨 1954-2013)



인문학과 경영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영비전을 제시하는 변화경영 사상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IBM에서 근무하면서 경영혁신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해 왔다. 특히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IBM 본사의 말콤 볼드리지(Malcolm Baldrige) 국제 심사관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직들의 경영혁신과 성과를 컨설팅하였다. 그가 하는 일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 된 지식 사회에서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사람을 돕는 일’이다. 어제에 갇히지 않고 오늘날의 생각과 행동을 시도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을 돕는 일이 그의 직업이다. 10년 동안 100명의 변화 경영 연구원들을 양성하고,

500명의 꿈벗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더불어 ‘시처럼 산다’(Life as a Poem)는 꿈을 가지고 있다.

1992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1회 ‘경영혁신대상’ 개인 공로자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삼성 SDS e캠퍼스는 활동 중인 3,000명의 강사 중에서 최고의 강사로 그를 선정했다.

또한, 기업의 CEO들이 뽑은 최고의 변화경영이론가이며, 직장인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강연가 1순위.

저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전문가가 뽑은 ‘90년대의 책 100선’에 선정되었다.

저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는 동아일보가 뽑은 ‘2001년 상반기 읽어야 할 책 10선’에 선정 되었고, 동시에 중앙일보 선정 ‘2001년 좋은 책 100선’에 올랐다. 저서 ‘오늘 눈부신 하루를 위하여’는 2004년 리더앤리더 자문위원단이 뽑은 국내의 ‘비즈니스 명저 40’에 선정 되었다. 2005년 저서 ‘코리아니티 경영’은 한국의 문화적 DNA를 바탕으로 제 2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차별적 경영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06년 저서 ‘공익을 경영하라’는 공익분야의 경영혁신을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깊이 있게 성찰한 책’으로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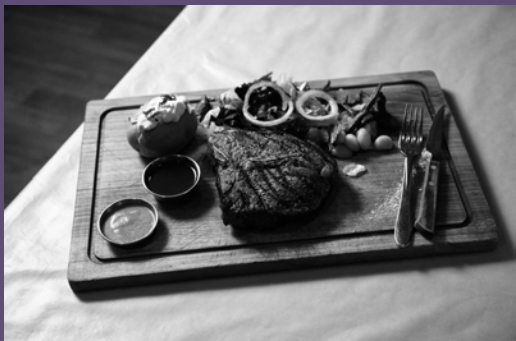
하루에 두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써라. 그대 또한 잘 하는 것이 있다.



저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40대 남성으로의 자기 고민, 즉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은 때, 이 책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가난이 지독히 나쁜 이유는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안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엄청난 유산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가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얼른 꺼내보고 싶었다. 선물을 받은 아이가 그 포장을 뜯어보고 싶어 하듯이 이 책은 껍질을 뜯고 나의 내면을 탐구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 내주었다. 이 책을 나를 위해 쓴 첫 번째 책이었고, 내가 최초의 독자였다. 나는 이 책으로 살고 싶은 인생을 찾았다.

'지금 시간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면, 그 시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의 시간이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팔았다면, 그것은 자유를 판 것이며,
아무래도 훌륭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곳곳에서 여러 겹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늘 바빠야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익숙한 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조금씩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줄 모른 채 살아간다. 그저 편하니까.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두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써라, 마음을 열고 욕망이 흐르게 하라.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혁의 이론과 방법을 제시한다. 직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저항의 얼굴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다섯 가지 일들 등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한다. **W**



DEEP

28

BOSS VS LEADER

훌륭한 리더

36

WONIK HERO

함께 꿈꾸고 함께 실현하자
테라세미콘 이승호 상무

40

밥 한 번 먹어요

다시 만나 반가운 여섯 사람의 정찬

46

명단공개

원익인물사전
원익홀딩스 이승현 부장 & 강한목 대리

48

그웨잇 팀

서로의 개성으로 빈틈없이 메우다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BM팀

52

멘토링

우리는 소울 메이트
테라세미콘 김승한 대리 & 김한별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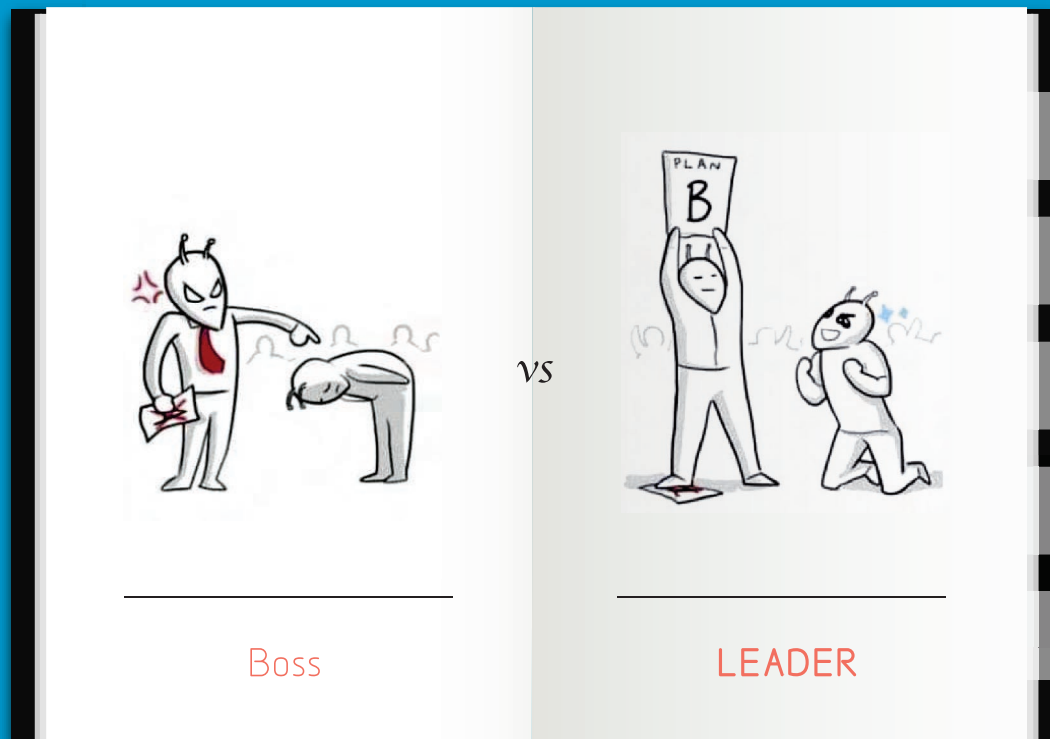
56

원익 덕후

한 컷을 위한 움직임
원익아이피에스 김형철 사원

훌륭한 리더

나의 상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가요?



Leader

Intere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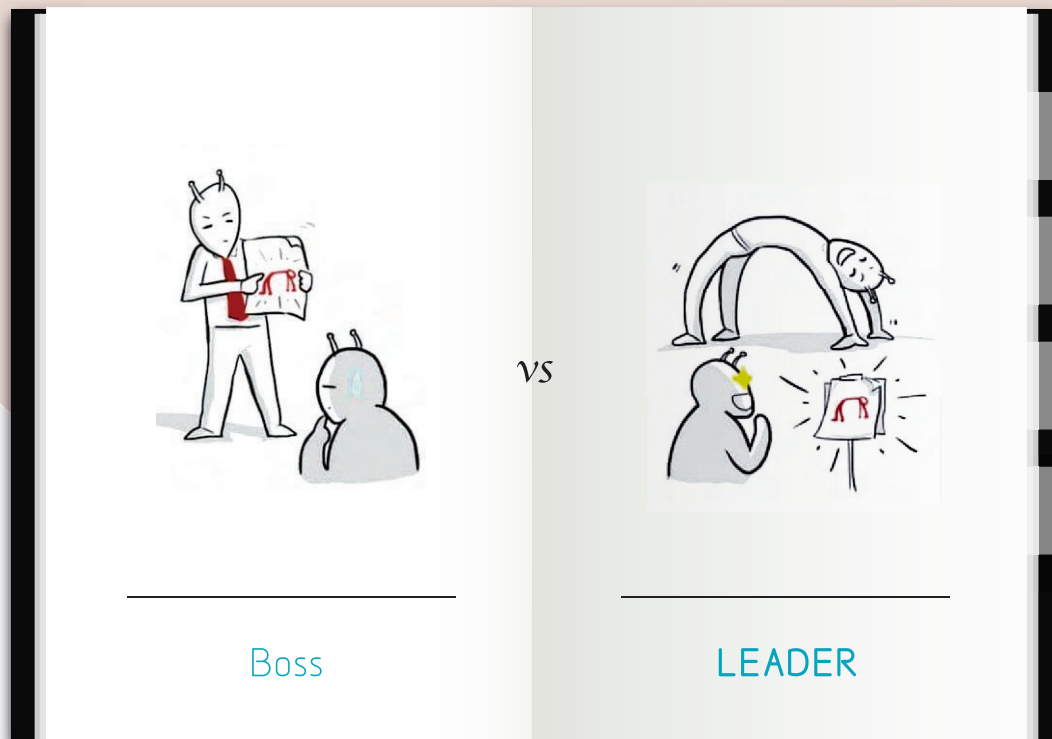
Boss

We

**보스는 단점만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 한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하지 않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 짐 론 -



**보스는 부리려고만 하고
리더는 술선수법 한다.**

포용하는 따스함과 배려하는 겸손함

원익큐브

건재/실리콘사업부 /상무 오재성

No.1 Leader

보스는 언제나 본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행여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감히 내게!'라며 이견을 막아버리지요. 그러나 원익큐브 건재사업팀의 그는 누군가 나의 실수를 말해주면 '고맙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한 번 해보라'이지요. 둘 중 어떤 리더가 이끄는 팀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Boss vs Leader





처음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4년차 강 대리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 신혼 단꿈에 젖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 제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바로 친구들 짝 찾아주기입니다.

사실, 오 상무님 정도의 외모시면 아무 말 없이 앉아계셔도 애프터가 가능하겠지요. 저는 처음에 ‘어라, 총무로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에?’ 싶었거든요. 187cm 훗칠한 키에 우수에 차다 못해 우주를 품은 눈. 거기에 젤름한 매너까지. 남자인 저도 가끔 감동을 받는 걸요.

작년 1월, 오 상무님과 함께 일주일간 독일 건축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직무가 변경되어 힘들어하는 저에게 현장을 보여주신다며 파격적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때는 PSL이 주력상품이라고 외우면서도 그게 어디에 쓰는 자재인지도 몰랐어요. 눈으로 직접 보니 한 번에 감이 딱딱 오더라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오 상무님께서 해주신 전반적인 업무 설명과 비전 제시는 supplier 개발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연애 코치까지 일당백

오 상무님 이야기에 제가 빠질 수는 없죠. 저는 입사 5년차 이대리입니다. 올해로 삼뽕. 서른이 지나고부터는 '내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생각이 많아 지더라고요. 민들레 씨앗처럼 가녀린 저의 정신을 잘 붙잡아주시는 건 오 상무님이에요.

제작년에 '메탈사이딩' 품목을 직접 수입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워낙 시장에서 유통이 적은 분야였기 때문에 신규아이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었지요. 그 때, 오 상무님께서 제게 '너 스스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에 퍼뜩 정신이 들어 직접 중국 공장을 방문하고 국내 공장도 컨택했지요. 1년 동안은 별 반응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매출이 오르고 있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 상무님이 더 좋아진 건, 단호한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결혼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인지 미처 몰랐는데 사석에서 오 상무님과이 그건 아니다 짚어주시더라고요. 하하. 덕분에 빨리 잘못을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서 말해주시구나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감싸 안기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12년차, 오 부장입니다. 저는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과의 줄다리기로 요즘 골치가 아픡니다. 밥을 통 안 먹거든요.

그럴 때면 입사 2년 차 때의 저를 떠올려봅니다. 돌 지난 아가의 사회 경험이었달까요. 하하. 양평에 있는 대형업체에 신규 거래선을 뚫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성과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던 어느 날 오 상무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올 게 왔구나' 싶어 잔뜩 얼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꾸지람 대신 특정품목의 가격 전권을 저한테 일임하시더라고요.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거래처 대표님이 오 상무님께 담당자의 단가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셨더라고요. 한 마디 질책도 없이 그저 현 상황의 해결에만 집중하신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후에 멋진 선배가 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오재성 상무는

?

‘심리 협상의 달인’

직원들에게는 채근 없이도 열심히
일하게끔 절대적인 응원을,
고객사에게는 최선의 모습을.
언제나, 누구와든
조용히 협상이 끝난다.



오영근 / 부장

입사 12년차

요즘 고민 / 밥 안 먹는 아들과의 줄다리기

‘나의 롤모델’

사무실에서는 하늘 같은 선배지만
사석에서는 거리낌 없는 형 같다.
연애 코치도 잘 해주시고.
10년 뒤,
나도 멋진 선배가 되어야지!



이최원 / 대리

입사 5년차

최근 관심사 / 내년을 목표로 결혼 준비

‘대화 천재 매너남’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맥이 끊이지 않는다. 평소 여러
방면의 지식을 두루 쌓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 핵심을 잘 파악한다.



강지민 / 대리

입사 4년차

최근 관심사 / 솔로 친구들 장가보내기

그대들 또한 나의 리더

어쩐지 무척이나 쑥스럽네요. 후배들의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럴싸한 선배가 되었나 싶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리더'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권위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위기였지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과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리더의 자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이와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와 내 주위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발전할 수 있지요. 그것을 위해 저는 몇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째, 자기관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데요. 체력적으로도 좋지만, 아침 운동을 하며 하루를 '로딩'하는 기분이 들어 그 차이를 체감합니다. 제 컨디션이 좋으면 좀 더 활기찬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격식은 내가 먼저 깎니다. 저는 원익큐브에서 가장 먼저 파마를 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그제야 직원들도 하나둘 하더라고요. 또 저희는 자율 출퇴근이라 가끔은 일부러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합니다. 물론 회식 때 '아무거나 먹어, 난 짜장면!'을 외치지도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게 'No' 해도 됩니다. 이제는 제게 애정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이를 떠나 누구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W**

큰 나무와 큰 우산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큰 나무는 작은 나무의 해를 모두 가려 성장을 방해하지만 큰 우산은 비는 막아주되 해가 나면 몸을 접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물을 볼 때 문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개선할 방향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총동원한다.

이승호 상무의 2017 원익인상 대상은
그래서 그에게 더더욱 잘 어울리는지 모른다.
“나는 그저 고민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뿐”,
모든 것은 동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할 뿐.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 ‘함께 꿈꾸고 함께 실현하자’

동료들을 대신해 받은 영광,
동료들에게 돌리고파



대상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동료들로부터 축하 전화가 몰려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내심 부끄럽기도 했죠. 제가 받아야 할 상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받아야 하는 건데, 또 회사의 매출 성과가 오른 게 몇몇 사람 덕택이 아니라 전사가 함께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의 상이라기보다 동료들을 대표해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당시를 떠올려보면, 우리의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 측에서 현재보다 생산성이 더욱 향상된 반도체 열처리 장비 개발을 의뢰해왔어요. 5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하고, 2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였죠. 여러 부서에서 20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선발되어 프로젝트 TF팀이 꾸려졌고, 저는 각 분야에서 모인 동료들의 능력이 팀 안에서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요.

개발 프로젝트의 화두는 ‘기존 장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구조적 장애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난제들을 잘 해결한 기억보다 부족했던 부분, 한계에 부딪혀 막막했던 기억이 먼저 날 정도로요. 하지만 TF팀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면서 느리지만 단단하게, 돌계단을 쌓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2015

년 초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듬해 9월에 완료될 때까지, 무엇보다 쉬운 일 하나 없었지만 그렇게 서로의 힘을 믿고 진행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프로젝트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같이 24시간을 함께한 동료들 덕택입니다.

개발된 시제품을 선보였을 때, 기존 장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었고, 품질과 퍼포먼스도 우수하다는 평이었어요. 단위 시간 생산성 향상과 에러 발생 횟수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고객의 말에 내심 쾌재를 불렀죠. 아마 TF팀 동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빠른 추격자에서 빠른 선도자로의 전환

저의 주 분야는 LED 기술이었어요. 그런 제가 반도체 장비 공정 개발을 한다니 의외죠? 장비 구조도 다르고 기술 배경도 다른데 말이죠. 사실 제가 입사한 2013년 이전에는 LED 분야에서 EPI 개발, ALD·CVD 개발 등을 맡아왔었습니다. 당시 이태완 상무님의 권유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분야는 달라도 이해도가 빠르니 금세 공정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 공정에 투입되는 기술은 달라도 공정 구조, 공정 순서는 상통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정보, 분석과 이해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테라세미콘이 원익과 가족이 되면서 자율적인 개발 분위기,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닮아가게 되어, 이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경영진도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과감해지고 기업 역량을 일신하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 성장·확대하는 와중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능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래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회사 실적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호경기에 편승한 결과라고 평가 절하하는 시선도 없지 않은 듯합니다. 전적으로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열처리 장비 기업에서 반도체 디퓨전 설비 토탈 메이커로 자리잡아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절실해요. 공간도 갖춰야 하고, 설비·기자재는 물론 가장 필수적인 인력 확보도 과제입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인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볼트와 너트의 생산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처럼, 우리도 자신감과 노력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꿈은 아닐 겁니다. 빠른 추격자(Fast Fallow)에서 빠른 선도자(Fast Mover)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THE
2017
WONIK
PRIZE

기술개발부문상
공철민 상무 외 10명
원익아이피에스

생산부문상
최광업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영업마케팅부문상
임현욱 부장 외 3명
테라세미콘

관리혁신부문상
김민철 과장
원익머트리얼즈

저를 아는 동료들은
모두 제 꿈을 알고 있어요.
꿈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꿈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꿈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제가 올해로 입사 5년 차가 됐네요.
먼 미래는 와 닿지 않으니 딱 5년 앞
만 생각하려고요. 우선 새로운 온도
제어기를 개발해내는 것이 5년 이내
미션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역량에 걸
맞는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이 장기적
인 꿈입니다. 저를 아는 동료들은 모
두 제 꿈을 알고 있어요.
꿈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러다 보
면 그 꿈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응원하
는 사람이 생기고, 기회가 찾아옵니
다. 우리 원의 가족들도 각자 동료에
게, 지인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자
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피드
백을 받아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자신
의 꿈을 차근차근 이뤄 나가길 기대합
니다. **W**

밥 한 번 먹어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밤,

다시 만나 반가운

여섯 사람의 정찬(正餐)

“한동안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은 날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다들 잘 지냈어요?” 서로에게 익숙한 듯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창밖 눈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쾌하고 정겨운 대화를 시작한다. 테이블 위 붉게 타는 촛불처럼 이들의 얼굴도 빨갱게 물들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겨울 저녁의 낭만도 깊어간다.



동탄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Bona Kava 보나카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내 편'이라 부르는 인사팀 사람들. 이들 여섯 명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미더운 사이다. 직책으로 부르는 호칭보다 '오랜 말벗'이 더 어울리는 이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두터운 우애를 오롯이 보여준다. 모처럼 만에 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정찬을 즐기는 이들을 만났다.

멀티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병오(원익홀딩스 대리) 독감이
유행이었는데 모두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온 걸 보니 안심입니다. 오늘따라 눈

이 내리니까 감성적인 기분이 들기도 하고, 더더욱 뜻깊은 식사가 될
것 같아요.

조수영(원익머트리얼즈 대리) 대리님이 이렇게 낭만적인 분인 줄
몰랐는데요? (웃음)

김동철(원익아이피에스 상무) 오랜만에 원익 인사팀 가족들이 모였
네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분들도 있는데, 다들 어때요?

안예인(원익홀딩스) 저는 인사 업무가 마음에 들어서, 정확히 말하
면 교육 분야가 좋아서 자원했어요. 아직은 기본적인 업무 위주로 경
험을 쌓고 있어서 마음만 굴뚝이지만요. (웃음) 그래도 꼭 도전하고 싶
은 분야입니다.

최예란(테라세미콘) 누구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평
강한 행복이죠. 그것도 회사라는 조직체에서는 더더욱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사 업무에 대해 동경이 있었는데
입사하자마자 바로 인사팀에 오게 됐어요.

소병오 제가 맡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 임직원들은 우리
의 교육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걸 자주 느껴요. 교육에 대

한 필요성과 개선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고, 교육을 마치면 회사 생
활에 대한 만족도도 꽤 올라가는 것 같고요.

김동철 교육만 해도 임직원들의 니즈가 참 다양하죠. 생각해 보면
직장인은 신입사원 교육부터 시작해 줄곧 교육의 연속이네요. 그나저
나 최예란 씨는 얼마 전 신입사원 교육에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어땠
어요?

최예란 저도 신입사원들과 나이로 보면 또래라고 할 수 있는데, 신
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감개무량하더라고
요. 신입사원들의 긴장한 표정을 보면서 ‘나도 1년 전에는 저랬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조수영 신입사원 교육 스텝이었을 때 참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스
케줄대로 움직이면서 시설이며 장비며 체크해야 하고, 눈코 뜰 새가
없었죠. 아침 일찍부터 일과를 시작해 밤에는 늦은 시간까지 발표 준
비하는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느라 수면 시간도 부족했었어요.

소병오 맞아요. 그래도 이들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해가고 이따금
마주할 때 반가이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김동철 사실 인사팀은 우리 임직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인사 고유의 업무에 복리후생 업무도 수행해야 하니까 자연히
일당백이 되는 것 같네요. 다들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김동철 상무



원익머트리얼즈
인사팀
조수영 대리

원익홀딩스
인사팀
안예인 사원



**신입사원 시절,
어떤 선배가 있었나요?**

소병오 김동철 상무님을 제외하면 다들 1~3년 정도의 인사 업무 경력이에요. 저마다 선배님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들이셨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선배의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김동철 저도 궁금하네요. 각자 존경하는 선배나 도움을 받은 상사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었는지. 아, 저는 제외하고요. (일동 웃음)

최수인(원익아이피에스) 상무님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호호. 신입사원 시절, 지금 생각하면 실수가 잦았고 어이없는 일로 선배들을 곤혹스럽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한번은 공지사항을 작성해 게시하는 일을 하다가 숫자였던가 단어였던가, 여하튼 잘못 게시해서 사무실 전화벨이 수없이 울렸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안절부절 하고 있고, 마침 선배가 직접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전화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지. 아무 일 아니니까 걱정 마” 하고 무뎌뎌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영화 속 대사처럼 멋졌었어요.

안예인 저도 입사 초기 때 참 사건·사고가 많았죠. 그때마다 심장이 쿵쿵쿵쿵 떨리곤 했는데, 챙겨주고 다독여준 분이 소병오 대리님이셨어요. 다른 선배분들과 친해지라고 부단히 데리고 다녀주셨지요.

소병오 그랬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하하. 아마 특별한 도움이라기보다 선배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조수영 소 대리님에게는 별 일 아니었을지 몰라도 안예인 씨에게는 천군만마였을 거예요. (웃음)

김동철 맞아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겠지만 신입사원 시절에는 무엇이든 처음 겪는 일이고, 실수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테니까.

조수영 제가 선배라고 하기에는 기라성 같은 고참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났하지만, 키다리 아저씨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스~와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주고 다시 스스~하고 사라지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호호.

소병오 오, 멋진걸요? 그거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우리는 임직원들이 걱정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해요. 정직하게, 정석대로, 정성을 다하다보면 우리의 진심과 가치를 이해해줄 겁니다.



테라세미콘
인사팀
최예란 사원



원익홀딩스
인사팀
소병오 대리



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최수인

우리가 바라는
원익인

김동철 이번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원익의 인재상에 대해 느낀 게 많았죠?

조수영 저는 신입사원들의 자유로운
발표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토당토하지 않는 제안이더라
도 발상이 신선했고, 분명한 논리가 있는 설득력 있는 발표 현장을 보
고, 실제 업무와 회의에서도 저것이 잘 구현된다면 좋겠다. 그런 자율
성·창의성이 조직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더라구요.

최예란 저는 이번 교육 강연 중에서 한 임원의 말씀이 떠올라요.
“최근에 신입사원을 선발하다 보면 기존의 잣대로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인원도 뽑는다. 그것은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짐에 따라 조직 역시
개성적인 인재를 받아들여 유연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의
정형화된 기준으로는 시대적인 변화를 따를 수 없게 돼 도태될 수 있
다.” 우리 회사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소병오 저도 비슷한데, 회장님의 신입사원 특강에서 말씀하셨던
“조금은 틀려도 괜찮다. 자신감 있고 자기주장이 명확한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선배들은 이렇게
했을까? 바꿔보면 이것이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왕이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다
짐했어요.

김동철 저는 집단토론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집단토론
이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지, 또 구성원 간의 융화에 대한 자세
와 생각을 보기 위해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는 원익인이라면 상대방
을 잘 헤아리고, 상대의 생각을 잘 조화시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열린 마인드의 사람이었음 좋겠어요.

조수영 창의적인 인재, 소통하는 인재로 귀결이 되네요.

최수인 열정적인 인재도 있죠. 내일을 위해 씨를 뿌리는 열정이
없다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열정이
라 생각해요. ‘역사상 열정 없이 만들어진 성공은 없다(R.W. 에머슨)’
란 말처럼, 우리에게 삶을 열정 에너지로 채우는 인재가 되어줬죠.

최예란 제가 근무 경력은 짧지만 ‘우리 원익이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점점 강해져요. 오늘 이렇게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니 더더욱요.

안예인 평소에는 주로 업무 이야기 나누다가, 이처럼 편한 자리
에서 그간 담고 있던 마음을 표현하게 되니 너무 좋아요.

김동철 저도 후배분들과 모처럼 이런 자리에서 맛있는 식사와 즐
거운 대화를 나누니 선배로서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기엔 아쉬우니 커피 한 잔 더 나을까요?

소병오 좋습니다. 음식도 분위기도 좋고, 창밖 하얗게 내리는 눈
보며 못다 한 이야기 나눕니다.

조수영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곳이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좋은데요. (일동 웃음) W



보다 듣기 좋은 감동스러운 연주가 되기 위해,
보다 아름다운 색상이 어우러진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
중요한 건 소리와 소리, 색상과 색상의 조화입니다.

우리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과
온갖 색의 물감이 그려내는 그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부딪히게 되는
차이와 다름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지혜를 갖는다면

하루하루의 삶은 보다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원익인의 만남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원익 인물 사전

정답은 없다 오직
나의 답이 있을뿐~
원익인의 개인취향
존중 프로젝트
오늘도
가즈아!

#03

강한목 대리
원익홀딩스 기술연구소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851020

천칭자리

나만의 추천 앱

1.뮤직메이트(Music Mate)
2. 옥수수(Oksusu)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데, SKT 통
신 이용자에 한해 뮤직메이트는
매달 300곡을 무료 들기가능,
옥수수 앱은 최신영화를 저렴히
또는 무료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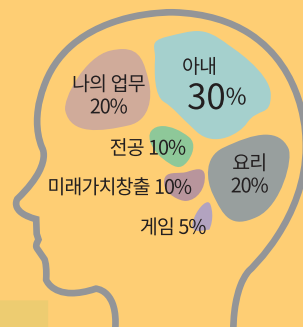
올해의 새로운 다짐

나의 올해 다짐은 아내를 위해 매 주말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다.

요즘 내가 한 것 중 최고의 선택

닌텐도 스위치(휴대용 게임기) 구매!
조카들을 만나러 갈 때 갖고갔다가 영웅이 되었다.
애들하고 친해지는데 게임기 만한게 없는 것 같다.

요즘 나의 뇌구조



최근 우울감 바닥이었던 때

결혼 준비하면서 =,
결혼은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았다.
집도 알아보고, 신혼 여행지도
선정하고, 양가 부모님외
친척들에게 인사 드리고,
선물도사고, 예물에 어이쿠...
두 번은 못하겠다.

최근 읽고 행복했던 공연

국내 창작연극 빨래
7080시절 한 소녀의 서울 상경기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 연극이
란 걸 처음 봤는데 너무 슬프고
감동적. 관람료도 2만원이니 꼭
보시길 추천. (시간이 없으시면
Youtube 로 하지만 많이 편집됨.)

무인도에 가져 갈 3가지

1.필기도구 2. 사진첩 3. 부싯돌
가족사진을 보면서 일기라도 써
야 외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음식은 익혀 먹어야지~

소환하고 싶은 내 추억

재작년 겨울 눈이오던 밤.
집앞에서 와이프랑 눈사람을
만들었다. 다 만들고 웃도 입혀
줬다. 이게 얼마 만에 만들어
보는 눈사람인가.



#04

이승현 부장
원익홀딩스 품질관리팀

마이 프로필

생년월일 710301 물고기자리

올해의 새로운 다짐

한해도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몸짱, 골프 싱글 도전, 가족 여행 및 독서

요즘 스스로에게 최고로 뿌듯했을 때

부서원들 업무 부하 줄이기 운동
신규 PJ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느낄 때

최근에 심각하게 우울감을 느꼈던 때

우울할때

와이프가 아파서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와이프 없이 살아 가야하는
생각을 할 때

힘들었을때

16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
대기하고 있을 때
(사람 피가 마르는 느낌)
2달반동안 회사, 집, 병원
세집 살림할 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때 & 가장 견디기 힘든 때

요즘 같은 날씨 아침에
따뜻한 이불속에서 눈을
뜰 때
따뜻한 공간에서 벗어나
야 한다는 생각 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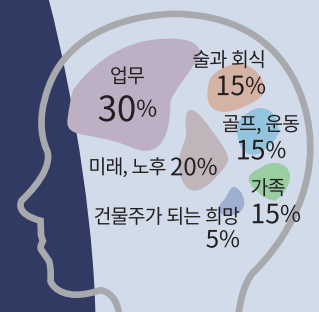
시간이 지나도 생각날 추억

술 많은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다녔던 젊었을 때
그때 그시절 (TT 아 옛날이여!!)

최근 가장 행복했던 순간

1. 예전부터 고전책을 읽어 보고 싶었지만, 딱딱한 무게감에
선뜻 내키지 않았는데, 최근 와이프가 건넨
만화로 쉽게 보는 <목민심서>는 단숨에 완독
완독 후, 그동안 팀장으로 직원들 대한 반성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
본인만이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서 더욱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 최고의 팀워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됨.
2. 와이프의 좋은 수술 경과로 갔던 20년
근속 기념 포상 해외 가족 여행ㅎㅎ

요즘 나의 뇌구조



무인도에 가져 갈 3가지

생각을 바꾸면
(무인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휴양일 수 있다.)
요트, 음식, 가족 (가족만 있는
공간에서 신나게 놀다 음)



서로의 개성으로
빈틈없이 레우다.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BM팀-

“어, 우리 그웬잇 아닌데 큰일이다. 요즘 새 브랜드의 아이디어가 스튜핏이거든요.” 이세연 대리의 애교 섞인 투정에 와르르 웃음이 쏟아졌다. 김소연 과장이 이 대리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했다. “걱정 마, 한파 지나면 우리가 공들인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올 거야. 분명 엑셀런트일걸!”

셀퓨전씨에게 2018년은 ‘설렘’이다. 17년 동안 병·의원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기 때문이다. K뷰티의 명성만큼 방대한 제품 속에서 고객에게 눈도장을 찍는 일은 만만찮다. ‘그래, 이거다’ 결정의 3초를 위해 수천 번의 회의도 마다않는 셀퓨전씨 BM팀을 만났다.

Excellent

기본부터 탄탄한 화장품 전문가

“2001년부터 쌓아온 신뢰. 화장품 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지 알 거예요. 어지간한 제품력이 아니라면 버텨낼 수 없는 시간이지요.” 김소연 과장이 사뭇 진지하게 말문을 연다. 이미 검증된 품질이라는 강력한 이점은, 묵직한 책임감을 만든다. “2년 전, 셀퓨전씨 BM팀에 들어오면서 성분에 대한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제대로 알아야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웃음기 많은 이세연 대리도 이때만 큼은 미소를 감추며 말을 이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성분에 대한 정보도 얻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질 낮은 정보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무조건 나쁜 성분이라는 건 없어요. 화장품 자체가 화학성분인걸요.” 소연 과장도 말을 보탰다. “그럼요.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은 성분을 원한다면 바르기 직전 짜낸 레몬즙을 발라야 할걸요.” 소연 과장의 옆면에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확실한 품질을 대중 앞에 내놓다

17년, 40개국, 4,000여 개의 병원. 셀퓨전씨는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난 후 민감해진 피부에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고, 빠른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명목을 이어왔다. 그 소문을 들은 드렉스토어가 셀퓨전씨의 문을 두드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소개하자는 것. 디자인팀에서 BM팀으로, 한 번의 변화를 겪었던 이민경 대리에게는 또 한 번의 도전이었다. “병·의원 시장과 화장품 시장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병·의원은 품질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화장품 시장은 디자인, 가격, 감성 등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혼자 답이 안 나올 때는 도움을 요청해요. 특히 수양 과장님을 많이 찾죠.” 갑작스러운 호명에 우수양 과장이 깜짝 놀란다. “나? 어머, 깜짝이야. 저를 찾는 건 아마도,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마케팅은 끝없는 아이디어 회의예요.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지요. 그래서 ‘일단 먹고’ 봐요. 수다 떨 듯 얘기하다 보면 ‘이거다’ 싶은 때가 오죠.”



서로 다른 우리, 다르기에

“수양 과장님은 큰 오빠? 아니다, 엄마 같으세요.” 암전히 있던 김시유 사원이 이야기에 동참한다. 얼마 전 공채 4기로 입사한 새내기다. “보습과 수분, 진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찾아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양 과장님은 직접 설명해주세요. 안티에이징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거나, 클렌징 제품은 기능성이 인정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세세한 부분들까지요.” 시유 사원의 칭찬에 수줍은 듯 수양 과장이 으름장을 놓는다. “그건 가르쳐주고 시험 보려고 그런 건데? 하하하. 저는 성향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하는 편이에요. 반면 소연 과장님은 논리적이고요.” 세연 대리가 바로 맞받아친다. “맞아요. 두 분은 책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소연 과장님은 일이 많아지면 책상 정리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리고 민경 대리는 차분하게 뭐든 오래 생각해요. 그러다 번뜩이는 한 방을 탁!” 나머지 팀원이 입을 모아 말했다. “세연 대리는 분위기 메이커지. 우리 팀의 에너지원!”

숨결 불어넣은 우리 제품

“애야, 넌 대체 뭐니?”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때론 말까지 걸었던 제품이 처음 드럭스토어에 입점했을 때, 소연 과장과 세연 대리는 냉큼 시장조사를 나갔다. “소연 과장님과 저희 제품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마침 한 고객이 저희 제품을 테스터 하는 거예요. 마음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저희 제품을 들었다가, 타사 제품을 들었다가 비교해보는데 ‘잡아라, 잡아라’ 주문을 외쳤죠.” 소연 과장도 그날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결국, 그 고객은 다른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덩석 그분을 잡고 왜 그 제품을 선택하셨냐고 물은 거 있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경험들을 발판 삼아 올봄, 조금 더 대중에게 가까워진 새로운 라인을 런칭한다. “앞으로 셀류전씨는 두 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전문성과 고기능성의 병의원 라인과 합리적이고 가벼운 텍스처의 대중 라인. 선배님들의 발걸음으로 잘 다져주신 길, 가만가만 잘 이어가겠습니다(BM팀 일동).” **W**



씨엠에스랩
셀류전씨 BM팀

왼쪽부터
김시유 사원
김소연 과장
이세연 대리
유수양 과장
이민경 대리



같은 곳을
바라보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란 시간 동안 시나브로 쌓인 신뢰 덕분에일까?
친한 형제 같다는 말에 김승한 대리와 김한별 대리는 서로 바라보며 호탕한 웃음을 짓는다.

테라세미콘 -시물레이션팀-
멘토 김승한 대리

A man with dark hair, smiling warmly, wearing a black jacket over a grey shirt. He is holding a red heart-shaped sign with both hands. The sign has the Korean text '우리는' at the top, '소울' on the left, and '메이트' on the right, with the heart symbol in the center. A red rectangular border frames the sign.

우리는 소울 ♥ 메이트

한낮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낸 두 사람.
미소 만면한 얼굴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을 보니 선후배 그 이상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진다.

테라세미콘 -시물레이션팀-
멘티 김한별 대리

선후배라는 말보다 고민을 함께하는 형제 같은 사이

꼭 1년 전, 시물레이션팀이라는 생소한 조직에서 한술밥을 먹게 된 김승한·김한별 대리는 서로를 지켜보며 이끌고 밀어주는 멘토와 멘티가 되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올해 4년 차가 된 김승한 대리는 김한별 대리를 두고 “어느덧 직장인 티가 나는 것 같다”며 깔깔 웃는다.

“작년 2월에 김한별 대리를 처음 뵈을 때 무엇이든 잘할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듬직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웬참은 후배가 왔구나’ 싶었죠.” 반면에 김한별 대리는 김승한 대리를 보고 겁을 먹었다. ‘샤프한 이미지에 차갑고 냉철할 것 같은 인상’ 덕분에 꽤나 긴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리님은 후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제게 반말할 때가 없고 항상 사려 깊게 행동하셔서 은근히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업무적으로나 그 외에도 배울 것이 참 많은 분입니다.”

두 사람은 “말은 업무가 비슷하고, 생각도 잘 맞아서 무척 편하다”는 말에 두 사람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저는 대리님이 술을 좀 줄인다고 하면 생각해볼게요. 하하.”

박장대소가 터지는 가운데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한 사람은 휘핑크림을 잔뜩 올린 카페모카, 다른 한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비슷한 면이 많다는 이들이지만 취향은 조금 다르다. 사진을 촬영하는데 서로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여주며 킥킥 웃는 두 사람은 더없이 친근한 형제처럼 보인다.

우리 대리님은
츄데레 같은 면이
있다니까요.

제 첫 사수이자 은인으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후배들에게
대리님 같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66

저나 후배나 첫 직장인만큼
서로 마음 편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오래 근무하고 싶어요.

99

99



시간이 우정을 쌓고, 우정이 행복을 만든다

김승한 · 김한별 대리의 주 업무는 열유동 시뮬레이션으로, 웨이퍼의 표면화학반응 시뮬레이션 작업과 장비 내 · 외부의 기류 · 온도 변화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맡아 진행한다. 보통은 타 부서에서 의뢰한 장비의 모델링 수정이나 시뮬레이션 조건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상당 부분 협업이 이루어진다.

“제가 대리님과 협업한다기보다는 항상 도움을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편이 맞을 겁니다. 해석을 위한 3D 모델링 기법이나 작업의 속도 ·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은 대리님이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교육만으로 알기 힘든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김한별 대리의 말에 김승한 대리는 “그저 후배가 빨리 업무를 진행하고, 노하우를 쌓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시뮬레이션팀의 초창기에 저 혼자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후배에게 그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뮬레이션했던 경험이나 팁을 알려주면서 업무에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나 후배나 첫 직장인 만큼 서로 마음 편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오래 근무하고 싶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스타일과 특징점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두 사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는 건 당연지사다. 얼마 전 김한별 대리가 병원 진료를 위해 긴급히 교통편이 필요할 때, 김승한 대리는 선뜻 직접 병원에 데려다주고, 출퇴근 카풀까지 도맡아주며 선배 노릇을 톡톡히 했다. “조만간 세차와 주유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는 김한별 대리다.

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지루할 새도 없이 어느새 하루가 다 가는 두 사람.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낼 시너지에 대해 기대감이 커진다. 김승한 대리는 “후배가 지금처럼만 일하면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힘을 보낸다. 그 말에 김한별 대리는 “저도 후배들에게 대리님 같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진실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더욱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하며 오랜 시간 속에 진실한 우정을 새겨 나가길 바란다. **W**

오전 10시 30분,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틀에 거미줄이 매달려있다. 김형철 사원이 두 손을 모아 만든 사각 프레임 속에 거미줄을 넣어 본다. “아무것도 아닌 풍경도 조금만 관찰하면 작품이 되지요. 세상 모든 사물이 제게 말을 걸어요.”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RF/제어팀 소프트웨어2파트
김형철 사원



일상 속 감성, 내 마음 속에 저장

매주 주말 가방을 챙겨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취미가 '사진'이거든요. 주말이면 동호회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약속이 없는 날에도 혼자 카메라를 들고 밖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고요.

사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였어요. 친구가 같이 야경을 찍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따라나섰죠. 그날 밤, 친구의 야시가 카메라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고 설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날부터 열성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고 카메라를 사기 위해 저축을 하며 사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시나요?

저는 풍경 사진이 좋더라고요. 물론 바람이나 빛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구도를 바꿔가며 몇 번이고 다시 찍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중에서도 야경 사진을 특히 좋아합니다. 15초 정도 장노출을 하면 빛의 궤적을 볼 수 있거든요. 한 장의 사진에 멈춰있는 건물과 움직이는 차를 모두 담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녀온 출사지 중에 기억이 나는 곳은 어디세요?

국내에서는 강원도 쪽을 좋아해요. 대관령에는 윈도우 배경화면같이 예쁜 삼양목장이 있고, 화천에는 적막 속에서 쏟아질 듯 매달려있는 무수한 별을 볼 수 있는 조경철 천문대가 있고요. 해외는 이탈리아의 친퀘테레가 참 좋았습니다. 북서부에 있는데, 5개의 해안마을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요. 저는 특히 3번째 마을이 동화 같이 예쁘더라고요.

사진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피사체를 담으면서 기억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는 거요. 사진 한 장을 보면 그 날의 날씨, 거기까지의 여정, 함께 있던 사람들,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모두 떠오르잖아요. 그야말로 '비밀지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범한 일상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저 사물은 내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을까' 생각해보곤 하죠. 제 안의 소녀감성이 깨어나요.

김형철 사원님에게 소녀 감성이 있군요.

놀라셨나요? 하하. 무뚝뚝한 성격이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저는 속삭이는 듯한 인디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에피톤 프로젝트나, 안녕하신가영 같이 나지막한 이야기로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끌리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 사진도 소박할 겁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이 들어있네요.

네. 일부러 예전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담고 싶어 후지필름사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만큼 다른 카메라가 내지 못하는 감성을 잡아낼 수 있어요. 대학 시절 친구도 저와 취향이 비슷해서 멀리 떨어져 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함께 출사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사진이 친구와의 오작교 역할도 하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소재가 뻔하잖아요. 일, 연애, 결혼, 돈. 그런데 같은 취미가 있으면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집니다. 서로 몰랐던 촬영 방법에서부터 함께 떠날 지역의 정보라던가. 일몰을 기다리는 동안 무심결에 툭, 마음속 심연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깊고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운다고나 할까요.

사진이라는 취미 덕에 일상이 행복해지셨네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매주 재충전을 하고 오니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주말이면 새로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일단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계절이든 축 쳐져있기 보다는 직접 발로 움직이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조금 버거운 일 앞에서도 '새 렌즈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감사해하고요. 하하하.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원익인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마세요. 하나의 풍경으로도 수만 가지의 각기 다른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 사진의 매력입니다. 장비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핸드폰부터 시작하세요. 찍고 싶은 사진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게 맞는 장비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찍어’ 보세요. 어제보다 멋진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W**



Great

머뭇거리는 나를 다독이는 손이다.

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씨엠에스랩/ 이만경 대리(그웨이 팀)



표준 단렌즈로 보고 싶은 세상이다.

표준 단렌즈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는다.

왜곡 없이,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원익을 사랑하고 싶다.

원익아이피에스/ 김형철 사원



별과 나의 노래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감격스럽다.

나 역시 제대로 된 화음을 넣어 멋진 하모니를 만들고 싶다.

씨엠에스랩/ 김시유 사원

원익은 꿈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이다.

좋은 선배와 동료 등 재료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려나가면 된다.

원익 큐브/ 강지민 대리



튼튼한 올타리다.

이것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일이 또 있을까?

믿고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것,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튼튼한 올타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일이다.

테라세미콘/ 김승한 대리



원익은 네비게이션이다.

늘 의욕이 앞서는 내게, 안전한 속도를 알려주고

헤매고 있을 때는 길을 가르쳐 준다.

원익 큐브/ 이희원 대리



원익의 이름으로 꼭 받고 싶은 자랑스러운 성적표(매출지표).

자식이 타운 기분이 들 것 같다. 그 기대감으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 제품을 사랑한다.

씨엠에스랩/ 김소연 과장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선부른 단정보다는 경청을,
잘못된 과거 보다는 미래로
시야를 돌리는 법을 배웠다.

원익큐브/ 오영근 부장



원익 사무실은 올림픽 경기장이다.

올림픽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순위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메달보다 값진 명장면이 항상 있다.

원익큐브/ 오재성 상무



나의 페이스메이커.

빈번하게 찾아오는 한계 앞에,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어 기쁘다.
오래도록 함께, 완주의 기쁨까지 누리고 싶다.

씨엠에스랩/ 유수양 과장



예상치 못한 칭찬 이다.

화해어워드에서 레이저 썬스크린이 1위를 한 것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 인정을 받는 거라 생각한다.

씨엠에스랩/ 이세연 대리



나는 원익인 이다.

1년 간 원익인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 옆에 있는 선후배 동료와
마음과 마음 사이의 간격을 좁혀보고 싶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을 공유하다 보면 즐거운 경험이 된다.

테라세미콘/ 김한별 대리





64

원익은 지금 ❶

2018 원익 시무식

70

원익은 지금 ❷

더 큰 세상을 향한 원익의 힘을 펼치다
2018 세미콘 코리아

76

원익은 지금 ❸

있는 힘껏, 바다를 가르고 달려라!
공채 3기 Retention 프로그램 - 요트 세일링

82

원익은 지금 ❹

새로 시작하는,
나는 원익 신입사원입니다
2018 원익 대졸 공채 4기 입문 교육

88

원익은 지금 ❺ 원익아이피에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포차차

92

원익은 지금 ❻ 원익큐엔씨

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우리

98

원익은 지금 ❼ 씨엠에스랩

하나로 뭉쳐 만든 우리만의 '힐링타임'

104

원익은 지금 ❽

WONIK과 함께 행복 더하기

108

명작예찬

깊이 있는 서정의 울림

도약의 2018

새로운 희망으로 달리자

2018
원익 시무식



2018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판교 사옥 로비에서 시무식이 진행됐다.

올해 시무식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공채 4기 신입사원이 함께 자리하였다. 충성과 용맹을 상징하는 개의 해,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이용한 회장과 각 계열사 임직원은 1월 2일 새해 첫 근무를 기념하며, 원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한데 힘을 모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자랑스러운 원익인에게 박수를

시무식의 첫 순서로 원익인상 수상식이 열렸다. 지난해 각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구성원과 조직을 치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진행된 원익인상 수상식은 대상을 비롯한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냈다. 먼저 테라세미콘 반도체공정팀 이승호 상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원익아이피에스 GEMINI TFT 공철민 상무 외 10명이 기술개발 부문상을, 원익아이피에스 제조기술팀 최광업 부장이 생산 부문상을 받았다. 또 테라세미콘 마케팅2팀 임현옥 부장 외 2명이 영업·마케팅 부문상을, 원익머트리얼즈 SCM팀 김민철 과장이 관리·혁신 부문상을 수상했다.

원익인상 수상식 이후 2018년도 임원 인사가 발표됐다. 부사장 2명, 전무 4명, 상무 12명 등 각 계열사에서 고루 포진했고, 승진 임원들은 단상에 올라 사령장을 받았다.



“

2018년은 조직 내 소통의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구성원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비로소 원익인, 우리 원익이라는
동질감이 생길 것이며,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극복할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경영자와 기업은 서로 닮는다.
변모하는 경영 환경 적응과 조직문화 개선을 쫓는
이용한 회장의 새해 일성처럼, 원익은 백년대계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드라이브를 시작할 것이다.





원익인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도전하자

신년사에서 이용한 회장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성과를 달성한 2017년은 원익인 모두에게 기념할 만한 한 해였다”면서, “말은 업무에서 열정적으로 임해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새해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지난 한 해 우리는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지만 호황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과 반도체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래적인 투자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 나갔다. 아울러 2018년은 조직 내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로써 임직원과 조직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비로소 원익인, 우리 원익이라는 동질감이 생길 것이며,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극복할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개개인이 진정성 있는 책임 활동을 공유하며 임직원 모두가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계열사 대표들도 이에 호응하며 저마다의 역량과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년사 직후 단상에 오른 신입사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들은 “무한한 도전정신으로, 항상 초심을 간직하면서 ‘자유·소통·행복’이란 핵심가치와 함께 원익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발표해 여러 임직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W**

부사장
승진

원익큐엔씨
최현욱



원익홀딩스
김채빈



전무
승진

원익큐엔씨
유윤재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테라세미콘
김형석



원익
백상천



상무
승진

원익큐엔씨
황익진



원익아이피에스
공철민



원익아이피에스
박종오



원익아이피에스
김명규



테라세미콘
박경완



테라세미콘
이승호



원익머트리얼즈
강혁



원익머트리얼즈
김도현



원익머트리얼즈
조익성



원익홀딩스
최명진



원익
이승룡



기획조정실
한동일





원익인상 수상자

대상

이승호 상무
테라세미콘 반도체공정팀

영업·마케팅 부문상

임현옥 부장 외 3명
테라세미콘 마케팅 2팀

관리·혁신 부문상

김민철 과장
원익머트리얼즈 SCM팀

기술개발 부문상

공철민 상무 외 10명
원익아이피에스 GEMINI TFT

생산 부문상

최광업 부장
원익아이피에스 제조기술팀

더 큰 세상을 향한 원익의 힘을 펼치다

2018 세미콘 코리아

연일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코엑스 전시관은 열기로 가득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가 열
리기 때문. 특히 원익은 6개 계열사가 막강한 시너지를 뽐내며 그 명성
을 더욱 뽐냈다. 그 3일 간 잔치의 뜨거웠던 현장을 담았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 까지, 강남 코엑스 전시관 1층과 3층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박람회인 세미콘 코리아가 개최되었다. 세미콘 코리아는 이후 각국에서 진행될 세미콘 차이나, 세미콘 도쿄, 세미콘 타이완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은 흥분된 모습이었다. A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원익의 4개의 부스, 6개 계열사는 실로 압도적이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굳건한 입지를 보이기

에 충분했다. 이번 전시는 원익 그룹의 원익홀딩스, 원익아이에스, 원익머트리얼즈, 원익큐엔씨, 테라세미콘, 원익 등 총 6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이날 축사에서 원익 이용환 회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성장을 치하하며, 반도체 산업은 비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장비와 소재분야에서도 크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반도체 장비와 재료 기수를 확인하러 온 관람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원익머트리얼즈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의 직원들은 사뭇 긴장한 모습이었다. 원익의 첫인상이라는 책임감에 방문객 한 분 한 분 더욱 살뜰하게 챙겼다. 김형규 대리는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Laser Mix를 소개했다. “기존의 아이템들이 증착이나 식각을 위주로 해온 반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Photo-Lithography공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네온 위주의 Laser Gas인데요. 저희 원익머트리얼즈에서는 201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마켓을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용 대표도 전시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오랜만에 세미콘 코리아에 직접 방문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외국계 회사가 많았으나 오늘 와보니 한국계 회사가 주종울(주를) 이루고 있어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더욱이 옆에 든든한 계열사들과 함께 해 더욱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동안 앞만 보며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요. 올해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회사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특허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 강자, 원익아이피에스와 테라세미콘

30여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적인 기술 선두주자로 우뚝 선 원익아이피에스와 테라세미콘은 조금 더 노련하게 손님을 맞았다. 매년 세미콘 코리아에 참석해왔던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는 고객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시간의 제약 없이 고객사를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특히 세미콘 코리아는 기존 고객들 이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광경환 과장이 말을 보탰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작년년부터 CVD장비와 몰드공정, 세미비치타입공정을 준비해왔습니다. 경쟁사 대비 공정 퍼포먼스 능력은 물론 환경 안전도 쟁쟁지요. 외국계 회사 못지

않은 기술력임에도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으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작년만큼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올 해 목표입니다.”

테라세미콘 신현보 전무는 중국 고객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세미콘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는 점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문객이 많으니까요. 그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 위주의 국내 시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중국 고객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국내의 기술이 월등히 앞서고 있기에 중국으로의 영역 확대가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도약의 장, 원익홀딩스

100% 수입에 의존했던 Gas Purifier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원익홀딩스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강문모 영업본부장은 “그 동안 자동화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많았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실린더의 자동화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베타버전이 완성되어 소음이나 동작 속도 등을 수정, 보완하여 내년 완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원년의 해입니다. 안전성은 물론 불량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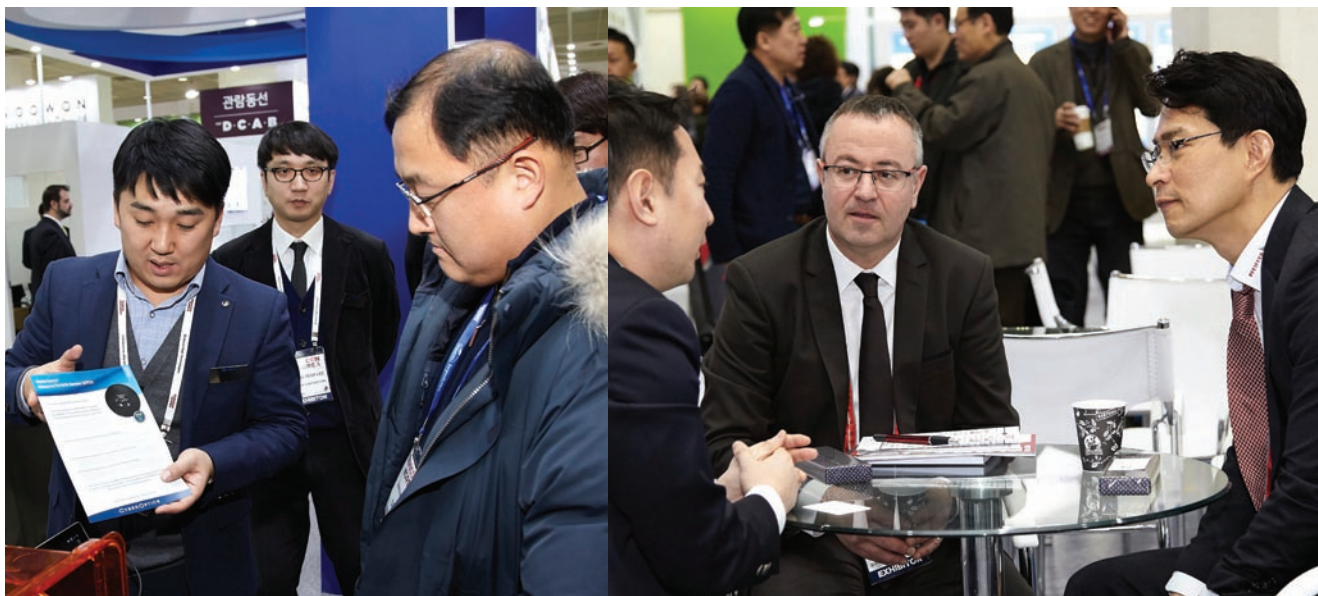
이재현 대표는 해외 영업 활성화의 각오를 다졌다. “작년 우리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기쁨을 올해도 재현하기



위해 해외 영업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아닌 중화권이 최대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기에 이번 세미콘 코리아를 통해 다양한 기회와 아이디어를 얻으 생각입니다.”







...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원익큐엔씨와 원익**

...

반도체 WAFER 생산에 필수적인 Quartz Ware와 TFT-LCD에 사용되는 Ceramics 제품을 제조하는 원익큐엔씨는 국내 및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 업체와 거래한다. 원익큐엔씨는 미국, 대만, 독일 등 현지 생산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발전할 포부를 밝혔다. 이남중 퀴즈영업부장은 세미콘 코리아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콘 코리아는 이전의 기술에 대한 보완점을 상의하고,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소개하는 두 가지 의미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로 개발한 패턴웨이퍼와 AMCT, 접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고객사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올해도 최대 실적을 내고 싶습니다.

반도체 WAFER 생산에 필수적인 Quartz Ware와 TFT-LCD에 사용되는 Ceramics 제품을 제조하는 원익큐엔씨는 국내 및 전 세계의 반도체 관련 업체와 거래한다. 원익큐엔씨는 미국, 대만, 독일 등 현지 생산공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발전할 포부를 밝혔다. 이남중 퀴즈영업부장은 세미콘 코리아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세미콘 코리아

는 이전의 기술에 대한 보완점을 상의하고, 아직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소개하는 두 가지 의미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로 개발한 패턴웨이퍼와 AMCT, 접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고객사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올해도 최대 실적을 내고 싶습니다.”

원익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쉽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CyberOptics社 제품과 더불어 미국의 UE PSI社 제품, 독일 HTT社 제품을 출품했다. 특히 사이버옵틱스社에서 새롭게 선보인 APS3 제품은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더욱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설비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품소재 사업팀 이호욱 과장은 “세미콘 코리아는 기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 개발 등 고객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입대표이사로 취임한 원익의 백상천 대표는 “세미콘 코리아를 통해 원익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유통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룹 내 반도체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원익의 든든한 계열사 식구들을 보니 어떤 어려운 상황도 힘을 합치면 못해낼 게 없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고 전했다. **W**



공채 3기 Retention 프로그램 - 요트 세일링

“우리들이 나섰다!”. 작년 1월, 사회로 첫발을 내디디며 꿈지와 희망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10개월을 보낸 이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참여 열기,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일궈낸 요트 세일링 체험 스토리를 전한다.

있는 힘껏, 바다를 가르고 달려라!

바쁜 업무를 잠시 뒤로 하고 보다돈독한 화합과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공채 3기 원익인들이 모였다. 이들의 미션은 요트 세일링. 모두 요트 세일링은 처음 도전하며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눈빛이 반짝인다. 오늘 요트 세일링 진행을 맡은 강동호 대표(드림요트코리아)는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즐거움과 동료와 함께 팀워크를 이뤄 커다란 요트를 조종하는 쾌감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라며 참여 의지를 북돋웠다. 그래서인지 조종 원리와 안전수칙 교육을 받고 요트 선착장으로 들어선 이들의 모습에서 강한 각오가 느껴졌다.



“요트 내에서는 각자 지정된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출항 이후에는 스킵퍼(Skipper)가 리더가 되는데, 사실 어느 위치든지 간에 자기 임무를 잘 해내야 하는 것만큼 팀워크 또한 중요해요. 임무를 돌아가면서 맡게 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멀티 플레이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이윽고 출항 시간이 됐다. 사우들은 스킵퍼, 네비게이터, 윈치맨* 등 처음 담당하게 된 역할을 수행하며 신중하게 바다를 헤쳐 갔다. 모두 처음 만져보는 장비들이라 어색해했지만, 차츰 익숙해지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다 내음이 참 기분 좋은데요! 입사 전까지는 어촌이 가까운 도시에 살았는데, 10개월 동안 회사생활에 적응하느라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요트를 실제 타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지요.”

“바람이 적어 앞으로 신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아쉬워요. 햇살은 따뜻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그래도 낭만적인 느낌이 나네요.”

누군가가 요트 안의 스피커로 느린 템포의 팝과 재즈를 틀다. 잠시 저마다 꿈꾸는 마도로스가 된 양 흠뻑 빠져든 평온한 모습들이다.

리프레쉬~ 낭만적인 요트생활 맛보기

요트는 모터 대신에 바람을 주동력으로 삼는 배의 일종으로, 광활하고 변화무쌍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개척자 정신의 상징과 같은 스포츠다. 보통 6~8명이 한 팀을 이루어 요트의 각 부분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아간다. 바다는 파도와 바람, 조류 등으로 끊임없이 모습을 달리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 환경이 처해 있는 조건과 비슷하다. 그래서 요트 세일링은 팀원들의 일치된 협업과 상호 신뢰가 필수이고, 각자 순간적인 민첩성과 집중력도 필요하다.

요트 실내로 들어서면 꽤 넓고 쾌적한 공간에 놀란다. 침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고, 주방과 화장실도 말끔한 모습이다. 전 인원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의자와 원탁 테이블도 멋지다. 거의 모든 인테리어가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 편안한 느낌을 준다. 강 대표가 요트의 각 부분을 설명하며 기능과 조작 방법을 알려주는데,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움직인다.



지금부터가 바로 요트 체험의 시작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선착장에서 제법 먼 바다에 이르자 파도가 표정을 달리하며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돛이 펄럭이며 깃발이 심히 나부끼자 신입사원들은 구령 소리와 함께 후다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다. 바다 한복판이라 위험할 법도 한데, 누구 하나 망설이는 이가 없다. 스키퍼와 바우맨이 요트의 앞뒤에서 시시각각 말하는 상황 전파에 귀 기울이며 능숙하게 돛을 움직이고 로프를 잡아당긴다. 그 모습이 전문 요트 선수들처럼 일사불란하다.

“보맨, 앞쪽에 뭐 보이는 거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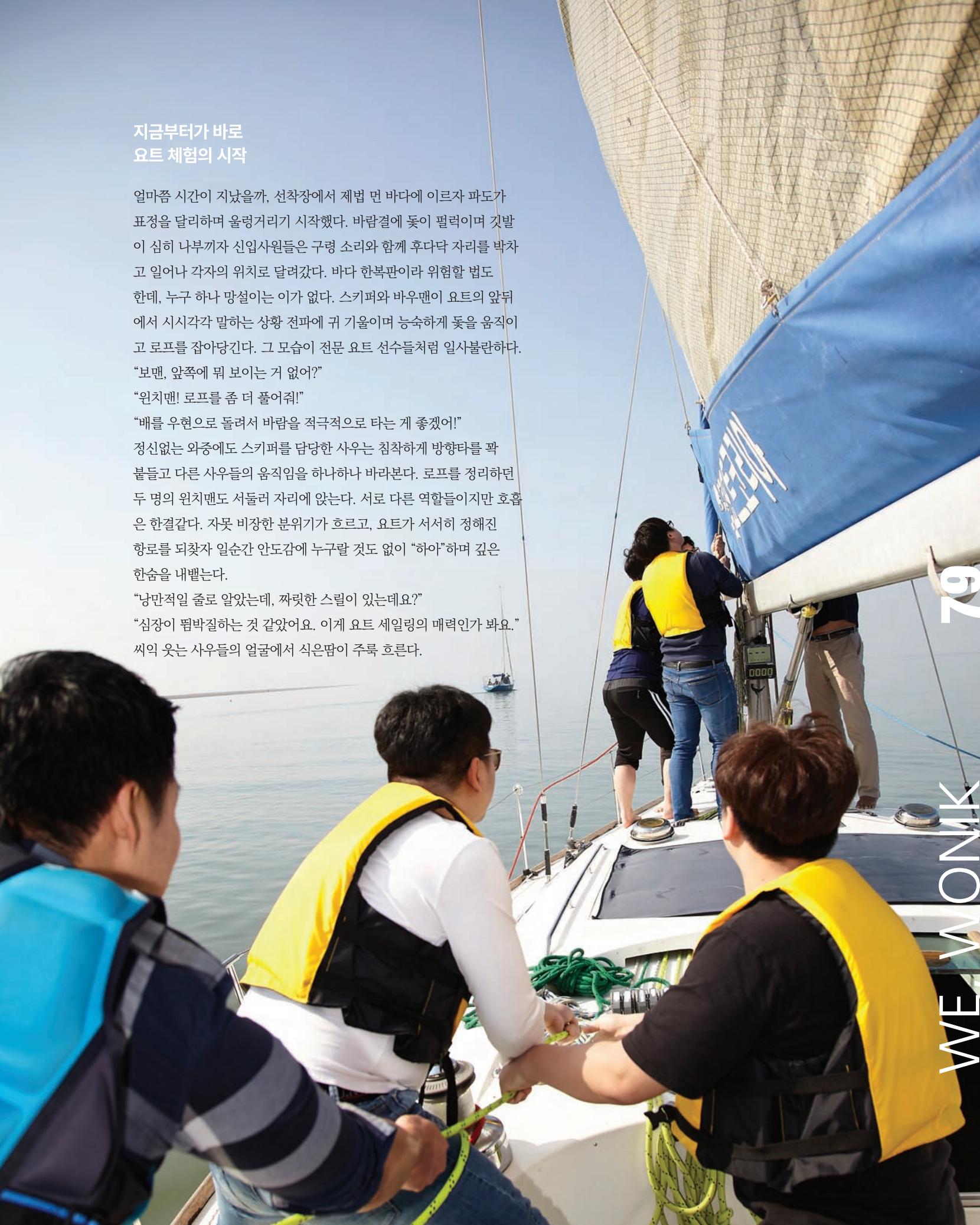
“윈치맨! 로프를 좀 더 풀어줘!”

“배를 우현으로 돌려서 바람을 적극적으로 타는 게 좋겠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스키퍼를 담당한 사우는 침착하게 방향타를 꼭 붙들고 다른 사우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로프를 정리하던 두 명의 윈치맨도 서둘러 자리에 앉는다. 서로 다른 역할들이지만 호흡은 한결같다. 자못 비장한 분위기가 흐르고, 요트가 서서히 정해진 항로를 되찾자 일순간 안도감이 누구랄 것도 없이 “하야”하며 깊은 한숨을 내뿜는다.

“낭만적일 줄로 알았는데, 짜릿한 스릴이 있는데요?”

“심장이 뿔박질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요트 세일링의 매력인가 봐요.”
씨익 웃는 사우들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주룩 흐른다.





바다만큼 넓고 깊은 새내기들

긴장의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요트 위. 항구가 어렴풋이 보이는 바다 위에 요트를 멈춘다. 신입사원들은 하나둘씩 줄뒀시를 수면 아래로 드리우며 줄을 늘리고 풀기를 반복한다. 딱히 뭔가를 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없지만, 한바탕 소란 뒤에 마음을 다독이기에 낚시만 한 것도 없다. 다시금 스피커에서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오고, 몇몇이 따라 부른다. 햇볕이 이웃한 동료들의 얼굴로 쏟아지고, 두어 명은 선제 뒤의 트래블러 자리에 앉아 바지를 걷고 물장구를 친다.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들고 갈매기를 맞이하는 이들, 항구와 바다 풍경을 사진에 담는 이들, 그늘진 돛 아래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이들 모두 평화로운 모습이다.

“한 번 체험으로 끝내기는 서운해요. 다음에는 이쪽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와서 다시 체험해보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바다 상황에 맞춰 로프를 풀고 조이면서 돛을 변경해가는 것이, 우리가 회사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각자 위치와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역할도 맡아보고, 자기가 파악한 정보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배를 이끌고 간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어요. 재미와 스릴은 덤이었습니다.” **W**



- * 스킵퍼(Skipper) : 요트를 운전하는 팀 리더로 선장의 역할
- * 바우맨(Bowman) : 요트 주변에 장애물과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는 메신저
- * 네비게이터(Navigator) : 목적지 거리와 현재 위치, 항로를 파악하는 네비게이터
- * 트리머(Trimmer) :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돛을 조정
- * 윈치맨(Starboard/Port Winch man) : 요트의 오른쪽/왼쪽에서 돛 조정을 위한 로프를 윈치를 이용하여 조정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기초 교육 후
전곡항에서 요트 세일링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맡은 바를 수행하면 다른 동료들이 따라 실천하게 되는 신뢰와 협동의
 '도미노 현상'을 체험한 공채 3기 동기들. 업무에 돌아가서도 이날의 진한 감동, 열정과 땀의
 노력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아직은 새내기들이지만 짧은 시간 이뤄낸 단결력과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완성되는 원익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새로 시작하는, 나는 원익 신입사원입니다.

2018
원익 대졸 공채
4기 입문 교육

.....

며칠 동안 준비한 발표와 공연이 끝나고,
새내기 동료들의 손을 맞잡으며 지난 2주간의
시간을 돌이켜본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날을 위해 노력한 동기들. 함께한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각자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보물이 될 지금 이 순간. 예수아홉의
마음들이 하나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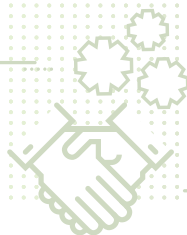


하나된 우리, 함께한 행복한 시간



원익의 미래이자 기둥이 될 새내기들의 신입사원교육이 1월 2일부터 17일까지 강릉 메이플비치에서 진행됐다. 신입사원들은 저마다 원익인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체계적으로 짜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완수해 가며 동기들과 차츰차츰 하나가 되어갔다. 낯선 곳에서 부대끼며 지내는 동안 새로운 인연이 되어갔고, 이들은 곧 긴 여정을 함께할 친근한 벗이 되었다. 약 2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이 같이 추구한 목표는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이었고, 같은 방에서 자고 한술밥을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원익의 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 입사 축하의 메시지, 건강을 당부하는 한 마디, 성공을 비는 응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원익인으로써 환영받는다는 생각에 기쁨과 감동

이 교차했다. 수일 째 연습과 연습을 더해 완성해간 모의 경영 프로젝트. 무엇보다 동기들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 속에 포함된 토론은 교육기간 중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남녀를 구분짓는 배려 대신, 진한 동기애를 택한 이들이 열정 가득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모두 똑 같은 인격체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각각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자를 선정하고 조직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모의 경영 프로젝트에서 이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주시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나가는 동기를 위해 믿음의 눈짓을 건네는 동기들의 모습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단단한 연결의 힘이 보이는 듯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어느새 '우리'가 되어 서로를 신뢰하고 닮아가고 있었다.



새내기의 초심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동안의 연습을 뒤로하고 무대에 오른 퍼포먼스 공연은 새내기들의 꿈과 재능이 어우러져 한층 화려함을 더했다. 임직원들의 박수갈채와 웃음까지도 각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감동적으로 진행되었고, 뮤지컬과 합창, 치어리딩과 블랙 나이트 쇼 등 모든 공연 요소는 적시적소에 빛을 받으며 흥을 돋웠다.

더러는 서툰고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퍼포먼스의 신선한 즐거움이 될 수 있었고, 저마다의 개성과 끼가 유쾌하게 전달되어 생생한 공연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자유', '소통', '행복'으로 만든 카드섹션이 등장할 때, 너나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임직원들의 커다란 호응 속에 진행된 퍼포먼스는 신입사원 교육 기간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겨졌다.

신입사원 간담회는 이용한 회장이 문을 열고 새내기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새내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원익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 주길 부탁하며, 보다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이끼지 않겠다"는 이용한 회장의 말처럼, 각자 맡은 분야에서 능력을 쌓고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원익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들.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을 그대들. 그대들이 만들어갈 원익의 미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다. **W**





DREAM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들

원익을 일구어 갈 하나하나의 희망들



87

WE, WONIK

SRX725

15"

150W

다 함께 포차차

근심을
털어놓고

원익아이피에스 소통의 밤
‘다함께 포차차! - 근심 좀 덜고家’

“어서 오세요!” 반가움 담긴 목소리가
원익아이피에스 구내식당에 울려 퍼진다.

포장마차의 정겨움과 크리스마스의 푸근함이
가득한 행사장을 확인하곤 미소를 가득 머금은 사우들.

지난 11월 23일 열린 원익아이피에스 소통의 밤 행사 ‘다 함께 포차차
- 근심 좀 덜고家’는 이렇듯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다.





우리 전용 포장마차에서

다 같이 으쌰 으쌰!

오후 5시 무렵, 구내식당 앞에 때아닌 줄이 길게 늘어섰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앞쪽을 들여다보니, 입구를 반쯤 가리고 있는 색색의 발에 ‘포차데이’·‘다 함께 포차차’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제 입장하세요!” 식당 안쪽에서 신호가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진격하는 사우들. 연말느낌 물씬 풍기는 눈사람과 산타, 선물꾸러미와 크리스마스가 이들을 반긴다. 그리고 그 뒤로 넓게 펼쳐진 먹거리, ‘근심좀 덜고家’ 포장마차, 소탈한 술자리 분위기. 원익아이피에스 조직문화 TFT 2기 너나들이가 포장마차 컨셉으로 준비한 ‘원익아이피에스 소통의 밤’ 행사는 이렇게 베일을 벗었다.

“연말을 맞아 모든 사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 러기엔 역시 포장마차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죠. 바쁜 업무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와 정을 나누면서 다 같이 ‘으쌰 으쌰’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익아이피에스 전용 포장마차’에 들어선 사우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화기에애함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식탁에 놓인 족발과 주먹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기막힌 음식들을 안주 삼아 한 잔, 동료들과의 수다가 맛있어서 또 한 잔 기울이는 사우들을 보고 있자니 군침과 부러움이 저절로 샘솟는다.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현덕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임직원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낮에 함박눈이 펄펄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행사는 참 풍성하겠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네요. 그동안의 회포 확실하게 푸시고, 함박눈처럼 탐스러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 그리다



왁자지껄하게 피어나는 이야기꽃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시간이 갈수록 포장 마차의 즐거움은 점점 더 치솟았다. 그런데 구내식당에 가득 들어찬 300여 명 사우들이 하나 같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 정체는 금세 밝혀졌다. “모두들 들어오실 때 행운권 한 장씩 받으셨죠? 지금부터 행운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사우들의 눈과 귀가 추첨 상자 쪽으로 쏠렸다.

추첨은 너나들이 팀원인 전예원 사원으로부터 출발했다. 번호가 호명되는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한껏 쏟아져 나왔다. 뒤이어 전진성 전무, 이근우 전무, 하윤희 부사장, 이현덕 대표가 차례로 나와 선물 받을 사우를 한 명씩 더 뽑았다. 선물에 당첨된 사우들은 기쁜 마음으로 각각 번호표 두 개씩을 더 뽑았다. 추가로 선정된 사우들에게는 커피전문점 상품권이 깜짝 선물로 돌아갔다.

추첨을 맡은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건넨 진솔한 이야기와 힘찬 건배사는 이번 행사의 또 다른 볼거리였다. 전진성 전무는 “이번 행사를 알차게 만들어 줘서 고맙다”며 너나들이 팀원들을 격려했고, 이근우 전무는 “너와 나, 우리들!”을 외쳤으며, 하윤희 부사장은 내년에도 거침없이 질





주할 원익아이피에스의 미래를 “달려!”라는 구호로 예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선 이현덕 대표의 이야기는 사우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다.

“저는 원익아이피에스가 ‘Innovative(획기적인)·Proud(자랑스러운)·Superior(우수한) Company’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회사와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도 모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합시다!”

이현덕 대표가 술잔을 들자, 사우들의 술잔과 흥겨움이 함께 치솟았다. 지금 이 순간 원익아이피에스 구내식당은 사람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골목길 포장마차,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렇게 원익아이피에스는 하나가 됐고, 하나같이 새로운 희망을 마음속에 그려 나갔다. **W**



91
WE, WONIK

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우리

바라만 봐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리만치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일선이지만 고락을 함께하는 동료들, 믿음으로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든든하다. 행복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대지를 물들던 시월의 어느 주말, 원익큐엔씨 사우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섰다. 애정 어린 마음을 나누며 온기가 넘쳤던 이날의 추억을 회상해본다.



South American S
남아메리카바다사자
南海獅・オタリア・Otariidae
크로커-수컷의 몸무게는 400kg, 암컷은 300kg 정도. 몸무게에 비해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수영할 때 안정감을 준다. 꼬리뼈가 단단하고, 꼬리뼈 끝에는 꼬리뼈가 있다. 꼬리뼈는 꼬리뼈를 받쳐준다.

93

이슬아침 저녁사슴 사슴은 한쌍이다

이슬아침 저녁사슴 사슴은 한쌍이다



사우들의 함성으로 들썩, 해양레일바이크

원익큐엔씨 사우 가족들을 시샘하듯 아침부터 조금씩 찬비가 내렸다. 빗길을 조심스레 달리던 버스가 당도한 곳은 전남 여수의 해양레일바이크, 탁 트인 바다를 끼고 달리는 상쾌하고 낭만적인 기분을 즐길 수 있어 인기 이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이 났다. 아직 비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아빠 엄마의 손을 잡아끌며 서둘러 가자고 재촉한다. 탑승장에 들어서자 일찍 버스에 내린 가족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한 사우에게 나들이 여정이 어떤지 묻자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니 너무 좋다”면서 “스트레스도, 힘들었던 일도 말끔히 씻겨 내려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대답한다.



대기 시간이 길면 지루해지기 마련이지만, 불평하는 이가 하나 없다. 아마도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봉훈 사우는 “우리 아이가 ‘아빠 회사가 최고!’라고 말해준 건 오늘이 처음”이라며 라며 미소 짓는다.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로 보일 수 있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안전수칙을 유심히 들었는데도 생각보다 속도가 꽤 빠르다. “내 리막길이니깐 조심 조심히 가자고!” 앞에서 일러두자 뒤에서도 화답하며 웃는다. 차츰 속도를 줄이자 주변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 반환점을 돌아온 사우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여유가 생겼다. 킁킁한 터널로 들어설 때는 살짝 겁이 난 것처럼 놀라다가, 이내 화려한 오색 조명이 쏟아지자 탄성을 지른다. 터널 끝에서 반환점을 도는데, 빨갛게 상기된 얼굴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 내내 페달을 밟은 아빠는 힘든 기색이건만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기만 한 듯하다.



바다의 꽃 섬, 오동도를 걷는 낭만에 취하다

여수 명물 오동도에 도착한 사우 가족들은 레일바이크 일행과는 조금 색다른 시간을 보냈다. 오동도 입구 주차장에서 방파제길을 따라 걷는 이들도 있고, 동백열차를 타고 해안가를 바라보며 가는 이들도 있다. 어느 방법이든 오동도로 가는 설렘은 같다. 한 사우는 “바닷바람이 차갑긴 한데, 가족끼리 어깨를 맞대고 가니 추운 줄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떤다.

더러는 파란색 점퍼를, 더러는 청바지에 회색 티를 입고 원익의 드레스 코드를 맞춰는데, 그래서인지 어디서든 사우 가족들이 한눈에 띈다. 환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자신감 넘쳐 보인다. 친근한 사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파제길 끝부터 동백나무숲으로 이뤄진 산책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 동백꽃은 겨울 무렵에 피는 꽃이라 붉게 물든 자태를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풍성한 푸른 잎사귀들을 바라보니 저절로 상쾌한 힐링이 되는 것 같다.



30분 간격으로 펼쳐지는 분수 쇼가 시작되자 사우 가족들의 시선이 쏠린다. 경쾌하게 춤을 추는 물줄기를 보면서 감탄하다가,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으며 한껏 웃는다. 김택렬 사우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를 앞질러간 동료들은 이 광경을 못 봤는데” 하며 아쉬워했다.

섬 전체에 미로처럼 이어져 있는 산책로는 걷다 보면 두어 시간이 족히 걸린다. 마냥 길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해안 절경이 보이는 곳에 놓인 바윗돌, 자갈과 등걸이 깔린 맨발 지압로, 이국적인 야자수 길과 울창한 산림욕장 등 체험 거리도 많다. 아이를 동반한 사우 가족들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신기한 것이라도 본양 두리번거리는 딸아이를 흐뭇하게 보는 아빠엄마의 미소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금강산도 식후경, 여수의 별미이자 보양식으로 알려진 하모 사부사부와 제철 생선회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하모는 일명 갯장어라 불리는 어종으로, 담백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생선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식당에서는 레일바이크 일행과 오동도 일행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구경담을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눴다.

오후가 되어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아쿠아플라넷. 바다생물들의 다양한 생태를 구경할 수 있어서 가족 여행으로 인기가 많은 곳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연신 “우와!” 감탄사를 지르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닌다. 사우 가족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아쿠아돔은 마치 바닷속을 걷고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360도 돔 수조가 아찔한 쾌감을 자아낸다. 어른 서너 명의 키 정도는 되어 보이는 높이에 가로 폭 16미터나 되는 대형 수조도 흥미롭다. 스쿠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가오리떼, 몸집이 큰 자이언트 그루퍼 등이 나타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공동수·박현숙 가족은 “모두들 물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빙긋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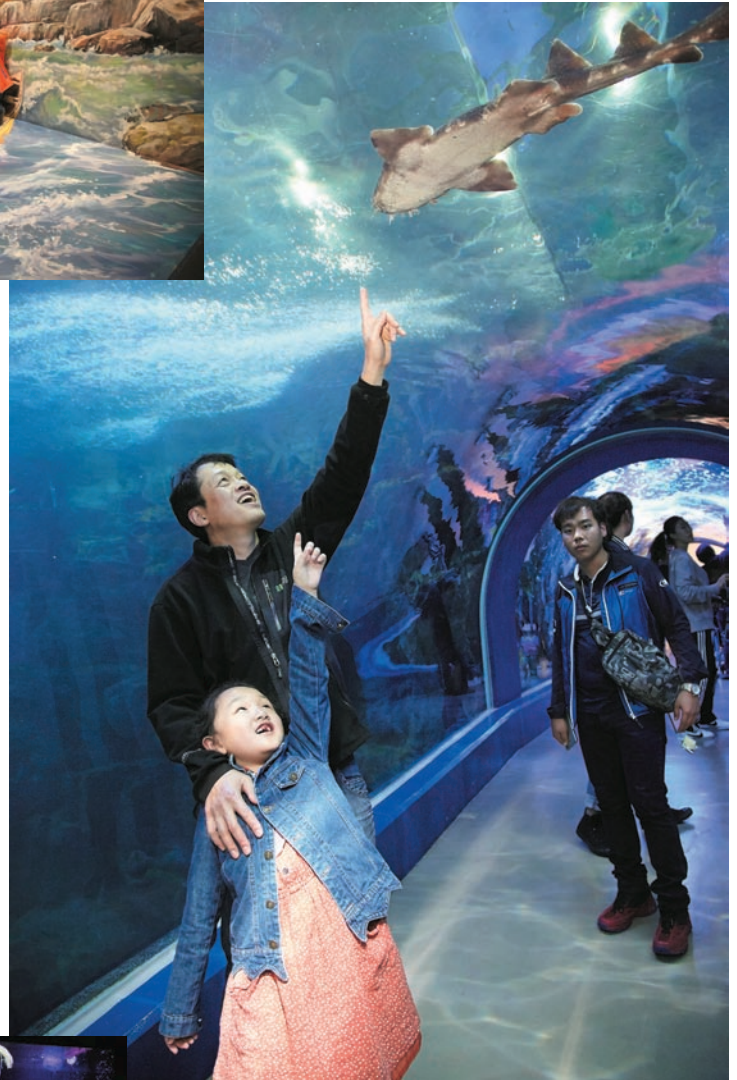
“바다생물 탐방은 이번 나들이의 화룡점정이네요. 사실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나 오래 근속한 고참사원,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만족할 만한 코스를 짚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즐겁습니다.”



장용수 사우는 “업무 파트가 달라 많이 친하지 못했던 분들을 코스 중에 자주 만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말한다.

“아, 이건 정말 홍보용 멘트가 아닌데,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서인지 가족이라 여겨져요.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어도, 멀리서 실루엣만으로 우리 사우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저마다 조금씩 말하는 내용은 달라도 이 나들이를 통해 사우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회사생활에서도 좋은 활력소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이번 나들이의 진행을 맡은 이민희 사우는 “서로 마주칠 때마다 밝게 웃어주는 게 느껴진다. 다음에도 모두가 즐겨할 수 있는 나들이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과 기대감이 든다”라고 다부지게 말한다. 비가 그친 뒤의 청아한 공기처럼, 가을 나들이로 하나된 사우 가족들의 행복한 미소가 하늘 아래 투명하게 빛난다. **W**

하나로 뭉쳐 만든 우리만의 ‘힐링타임’

씨엠에스랩 단합대회 ‘뭉쳐야 뜬다-청계산 편’

생기발랄한 에너지가 고요하던 청계산을 뒤덮었다. 지난 11월 3일 오후, 이곳에서 단합대회 ‘뭉쳐야 뜬다’를 가진 씨엠에스랩 사우들이 그 주인공. 막 점심을 먹고 청계 쉼터로 모여드는 그들의 눈빛은 설렘과 기대로 초롱초롱했다.





혼자 일때 보다
더 따뜻한 우리-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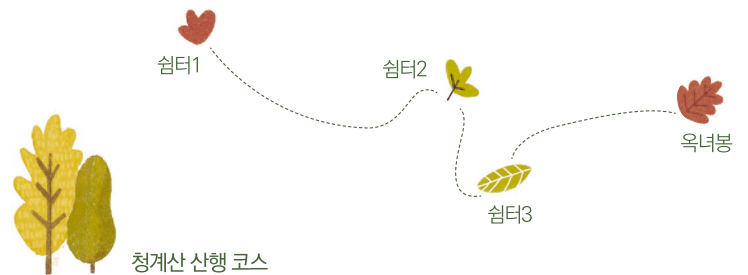


“조원 분들, 얼른 뛰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뿜던 청계습터가 숨 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조원들이 모이는 순서에 따라 간식이 다르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우들의 스마트폰이 불을 뿜었다. “저희가 1등입니다!” 가장 빨리 모인 1조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푸짐하게 구성된 ‘1등 간식꾸러미’를 받아들고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는 1조 사우들. ‘뭉쳐야 뜬다’ 행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탠 경영지원팀 인사파트 박영우 과장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알고 보니 조원들끼리 좀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 마련한 깜짝 이벤트란다.

“IT기업들은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으레 ‘언박싱(Unboxing) 행사’를 하는데, 이번 단합대회에 이런 요소를 적용했어요. 조 구성만 알려줘서 같이 점심을 먹게 한 다음, 사내 단체 채팅방에 간식미션을 깜짝 공개한 거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조원들끼리 채팅방을 만들고, 전화통화도 하고, 업무 쉬는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서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죠.”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서로 손을 맞잡은 사우들이 ‘마음 맞추기’ 게임에 돌입했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같은 선택지를 고른 사우들은 손뼉을 마주치며 기뻐했고, 엇갈린 사우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조장을 뿔었고, 어깨에 손을 올리며 굳었던 근육을 쪽쪽 늘렸다. 사내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사진 미션이 공개되자, 어떻게 찍어야 점수를 많이 받을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쯤 되니 직급은 뒷전. 선배 사우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부하 직원들을 배려했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어느새 동료들과 함께 청계산의 품에 안겨 힐링할 시간이 다가왔다. 단풍처럼 화사하게 웃음 짓는 씨엠에스랩 사우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가벼웠다.



산행 내내 여기저기에서 ‘찰각’ 소리와 함박웃음이 터져 나왔다. 동행·동료·협업 등 3개 주제에 맞춰 틈틈이 조별 사진 미션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풍을 배경으로 찍은 ‘셀카’는 이미 단순한 사진 그 이상의 의미. 2017년 가을, 조원들과의 즐거운 추억이 단체 채팅방에 켜켜이 쌓였다.

중간중간 진행된 게임들은 단합대회의 맛을 돋우는 양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첫 번째 휴식 시간에는 ‘협력 박수 게임’이 펼쳐졌다. 조원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가 최고!”를 외친 뒤 최대한 빨리 자리에 앉는 게임이었다. 연습 시간 3분 동안 작전을 짰 7개 조가 돌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했다. 한 개 조가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심터에서는 조원들 간의 소통을 유도하는 ‘한 마음 한 방향 게임’이 이어졌다. 널따란 사각 천을 둘러 잡은 조원들이 적절한 경사를 만들고 그 위에 올려진 공을 5개 구멍 주위로 빠뜨리지 않고 회전시켜야 하는, 제법 난이도 높은 게임이었다. 일곱 명이 하나의 공을 조종해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공이 구멍 주변을 뱅글르르 돌 때마다, 사우들 면면에 해냈다는 기쁨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진하게 스며들었다.

이윽고 이번 행사의 결승점인 청계산 옥녀봉에 다다랐다. 해발 375미터의 다소 낮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의 전경과 오색찬란한 단풍들이 아름답게 섞였다. 우정과 뿌듯함이 씨엠에스랩 사우들 마음에 새겨졌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조차 밝고 따뜻한 웃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산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막걸리가 한 잔씩 사우들 손으로 전해졌다. 잔을 높이 쳐든 이진수 대표가 힘차게 외쳤다. “우리는 씨엠에스, 멋진 씨엠에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든 사우들이 이진수 대표의 구호를 따라 했다. 한결 훈훈해진 기분으로,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무사히 내려온 뒤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마친 사우들 앞에 종이를 든 진행자가 섰다. “이제 시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4조, 3조, 2조가 각각 종합순위 1위, 포토제닉상, 열정상 수상 조로 선정되자 모두가 자기 일처럼 축하했다. 마지막 코스인 오리전문점을 가득 채운 사우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번 단합대회의 대성공을 알리는 진심 가득 담긴 외침이었다. **W**



이번 행사의 이름인 ‘뭉쳐야 뜬다’처럼,
앞으로 모든 사우가 힘을 합쳐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씨엠에스랩 메디컬사업팀 김경환 대리





평년 기온을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불어 닥친 12월, 옷깃을 여미고 온정이 필요한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원익 가족들. 옮겨울이 그리 춥지만 않은 것은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포근한 겨울나기,
원익이 함께하겠습니다.



WONIK과 함께 행복 더하기

12월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한 한 자원봉사센터. 9시 무렵이 되자 원익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인지 빨갛게 상기된 볼을 마스크로 가리거나 양손을 부비며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40여 명 남짓한데,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는 신기한 듯 두 눈을 두리번거린다. 이날 원익 가족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김세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사업본부장은 “성남의 저소득 가정에 전할 선물을 마련하고, 원익 가족이 직접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작년 이어 올해도 원익 가족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웃들도 따뜻한 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말도 곁들인다.

오늘, 원익 가족들이 전달할 선물은 쌀과 라면, 햄, 참기름, 고추장 등 8개 품목이다. 이것을 커다란 케이스에 담아 봉한 뒤 차례로 차량에 실어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이다. ‘행복뿔뿔 원익박스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스티커 문구가 앙증맞아 보인다.

10:00
지속적인 관심
따뜻한 정성



트럭에 실린 생활필수품들을 센터 내 로비로 하나씩 옮기고, 박스를 풀어 품목별로 가지런히 놓아두는 작업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케이스에 스티커 라벨을 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워진 박스를 복도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 동시에 이뤄졌다. 언뜻 봐도 무거워 보이는 박스를 두 손으로 받아든 아이는 힘들지 않다는 듯이 활짝 미소 지으며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덧 로비 안이 선물들로 가득 찼다.



11:00

아름다운 사람 원익 가족들

케이스에 선물을 콕콕 눌러 담은 원익박스가 100개를 넘어섰다. 부산스럽게 오가는 중에도 손발이 척척 맞는 듯한 느낌이다. 이대로라면 곧 330개의 원익박스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만들어진 원익박스가 건물 밖 공터에 쌓여간다. 로비에서 작업하던 사람들도 저마다 원익박스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온다. 차가운 공기가 한결 나아졌지만,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은 여전히 시리다.

길고 높다란 성채처럼 쌓인 원익박스 앞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재현 원익홀딩스 사장이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정신을 깨닫고, 각자 보람과 긍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윤기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이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뜻깊은 마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주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원익 가족 2명과 봉사자 1명이 함께 조를 이뤄 가정 방문에 나섰다. 원익 가족들이 원익박스를 전달할 가정은 모두 90세대로, 독거노인 가정과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240세대는 성남시 3개 구에 있는 희망나눔센터를 통해 전달될 터다.



13:00

사랑 담은 원익박스

원익 가족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섰다. 직접 원익박스를 받아들이고 갈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어르신들에

게 정성스럽게 원익박스를 건네며 “울겨울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인사하던 김지만 기획조정실 상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봉사 활동 참여인데, 우리 원익의 진정어린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드디어 직접 가정배달에 나선 원익 가족들. 한곳한곳 방문하면서 마음 한켠이 어두워진다. 생각보다 어려운 생활환경을 보고는 말을 잊지 못한다. 봉사 활동을 함께한 김한결 어린이(열세 살)와 김한승 어린이(여덟 살)도 생기발랄하던 모습을 거두고 아버지과 꼭 붙어 있다가 용기 내어 말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봉사 활동 참여입니다.

우리 원익의 진정어린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맛있는 것 많이 드세요.”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16:00

마음조차
따끈따끈

가정배달이 끝날 즈음,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하늘이 노르스름하게 변해간다. “수고했어”, “힘들진 않았지?” 서로

로를 다독이며 비소로 환한 미소를 짓는 원익가족들이다. 이날 사랑의 원익박스를 이웃에게 전달한 이들은 저마다 어떤 생각을 품게 됐을까? 동네 곳곳을 누비며 온 정을 전한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옮겨올은 예년보다 조금쯤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다. **W**

5-II-70 #144
김환기 (金煥基 1913 ~ 1974)

깊이 있는 서정의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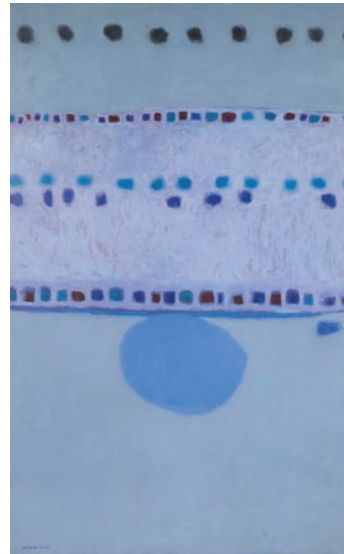


면위에 유채
177 x 88.5 cm

수화(樹話) 김환기는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서 세련되고 승화된 조형언어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여 한국을 비롯, 현대 미술의 중심지인 파리와 뉴욕으로까지 그 이름을 알렸다. 그의 예술은 56년부터 59년까지 약 3년간의 파리 시대와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수상한 해인 63년부터 작고한 74년에 이르는 뉴욕시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데, 파리시대와 서울시대를 포함한 50년대까지 그의 예술은 엄격하고 절제된 조형성 속에 한국의 고유한 서정의 세계를 구현하였으며, 60년대 후반 뉴욕시대에 는 점, 선, 면 등 순수한 조형적 요소로 보다 보편적이고 내밀한 서정의 세계를 심화시켰다.



여름밤의 소리
1970
면위에 유채
139 x 84 cm



새벽#3
1970
면위에 유채
139 x 84 cm

원익 사옥에서 그를 만나다 두 번째 아틀리에 - 수화(樹話) 김환기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해 회화부분 명예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한국 미술은 아직 좁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미술을 접하기 위해 그해 11월 뉴욕으로 직접 떠나게 된다. 이전에 그렸던 산과 달 등을 계속해서 그리기도 했지만, 1964년을 즈음하면서부터 작품 속에 구체적인 형상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며, 화면은 간소화 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완전 추상에 이행하게 된다. 그리고 7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또 한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물감을 캔버스 위에 펴바르던 기법과는 다르게 물감을 묽게 희석한 뒤 천에 스며들게 하는, 마치 동양의 발묵법을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변화를 이룸으로써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깊이감이 나타나게 되었다. 위

작품 <여름밤의 소리>는 70년대부터 작품이 전면점화로 이행하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60년대의 사방구도나 십자구도 등의 추상회화 작품들 보다 더욱 간소화된 구성을 보여주는 데, 거의 대부분의 화면을 푸른빛의 단색면으로 채워내고있다. 이 푸른색은 물감을 그냥 원색 그대로 바른 것이 아니라 여러 색의 물감을 테레핀으로 묽게 희석한 뒤, 수차례 반복하여 칠해서 천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인데, 여러가지 색을 중첩시켰기 때문에 원색조의 강렬함이 아닌 중간톤의 은은함이 느껴진다. 제목에서 유추해 보면 아마 이 푸른빛은 여름 밤하늘, 그 중에서도 해가 막지고 난 직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다. 여기에 상단과 하단에 부분적으로 떠있는 형형색색의 색점들은 밤하늘 위에 떠있는 별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목에서 언급된 ‘소리’를 리듬감있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특히 하단의 위치한 점들의 군집은 마치 생명을 막 티워낸 새싹들을 연상시키는데, 이것은 작가의 추상회화가 여전히 자연의 속성과 말닿아 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NEWS FOCUS

WINTER 2018

111

원익홀딩스

김채빈 부사장 평택시 유공자 표창 수상
원익홀딩스-평택노동지청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 체결
원익홀딩스 2018 시무식

113

원익아이피에스

2018년 새해맞이 행복떡국
수시입사자 역량향상 교육

114

원익머트리얼즈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주 52시간 단축근무 본격 시행

115

원익큐엔씨

구미시 장수기업 선정
2017년 송년의 밤 개최

117

테라세미콘

Family day 2탄, 서울 고궁 투어
Culture day 2탄, 토르
제 10회 반도체의 날 장관상 수상
수출의 탑 및 동탑산업훈장 수상
2017 송년회 개최

120

원익

활기찬 한주를 위한 MCM 시행

121

원익큐브

세계 인문 속으로!

122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2017 화해 뷰티어워드 1위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KCAB)’ 수상

123

하늘물빛정원

하늘물빛정원 ‘행복센터’ 그랜드 오픈

124

원익투자파트너스

청계산 등반
가족행사

김채빈 부사장 평택시 유공자 표창 수상



원익홀딩스 김채빈 부사장이 평소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평택시청의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적상 수여식에 참여하였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참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재광 시장은 “어수선한 국내의 경제 상황 중에도 평택시는 민간도시 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

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평택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건 주요 기업들”이라며, “향후에도 시차원에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니, 평택시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한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공재광 평택시장의 격려사 이후, 시상이 이어졌다. 본 상은 기업애로 사항 해결 및 에너지 분야 민원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임직원을 포상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김채빈 부사장은 평소 봉사정신과 애항심을 바탕으로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적극 참여하며,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평택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아 공적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본 수상과 관련하여 김채빈 부사장은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익홀딩스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수상소감을 전하였다. 본 수상을 통해 평택에서의 원익홀딩스, 더 나아가 원익그룹의 기업 이미지가 더욱 좋아지길 기대해 본다.

원익홀딩스-평택노동지청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체결



지난 11월 30일, 원익홀딩스와 평택노동지청의 노사정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본 협약식에는, 원익홀딩스의 노사 대표, 평택노동지청의 서호원 지청장, 감독관 등이 참여하였다.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은 정부가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이에 동참하는 기업은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노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행위준칙”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영역으로는, ①일자리 창출과 근로의 질 제고 ②대·중소기업 근로 조건의 격차완화 ③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개선 ④투명경영 ⑤법 준수의 관행 확립이 있다. 이 내용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이재현 대표이사와 최보길 근로자대표는 “노사가 힘을 합쳐 정부 최우선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다하는 따뜻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원익홀딩스를 비롯하여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2018 시무식

지난 1월 3일, 흥덕유타워 대강당에서 원익홀딩스 시무식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의 경우, 지난 한 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 향후 회사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무식 식순은 포상 시상, 사령장 수여, 대표이사 인사 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포상으로는 공로상, 특별상, 모범사원상을 수여하였다. 공로상은 한 해 동안 근무활동이 우수하고 업적이 탁월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여한 상으로, E&C 본부 최명진 상무, 재무팀 오동근 부장, 제조기술팀 복정주과장이 수상하였다. 특별상은 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회사성공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부서를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은 CS팀이 차지하였는데, 국내외 어려운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 성과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지제사업장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큰 환경안전팀이 수상하였다. 모범사원상은 타의 모범이 되는 조

직생활과, 회사의 발전과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여하였다.

이후에는 사령장 수여가 이루어졌는데, 부장 승격자와 과장 승격자 순으로 수여식이 이어졌다. 진행되는 중간중간 박수와 환호가 계속 이어졌으며,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신년사 전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현 대표이사는 “먼저 지난 1년간 원익홀딩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에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라 하더라도 2017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을 전했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력 확대와 생존 가능한 자생력 확보, 창의적인 도전과 열정, 소통을 강조한다”라고 임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함께 모여 활기차게 시작한 만큼, 2017년을 뛰어넘는 2018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2018년 새해맞이 행복떡국



2018년 원익아이피에스 시무식을 마친 점심시간! 사내 식당에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새해를 맞아 경영진이 임직원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현덕 사

장과 박성기 부사장의 떡국 배식! 두 분은 조리실에 맞는 복장과 위생 마스크 착용까지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일일 조리장으로 변신하였다. 직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 깜짝 놀라 즐거워하는 직원부터 경영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들, 그리고 당황하는 임원들까지 각양각색의 모습이었다. 그래도 공통적인 건 새해를 맞아 직원들을 위해 이벤트를 열어준 경영진과 조직문화TFT '너나들이' 덕분에 즐거운 점심시간을 맞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하윤희 부사장과 전진성 전무는 간식꾸러미를 나눠주며 직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다. “맛있게 드시고,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에게 덕담이 오가는 훈훈한 원익아이피에스! 2018년 첫 시작이 좋다.

원익아이피에스

수시입사자 역량향상 교육

2017년 작년 한 해 원익아이피에스에 수시 채용으로 입사한 신입/경력직 입사자는 총 138명. 연말 인원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20%가 작년 한 해 입사했다고 볼 수 있으니 꽤 많은 직원들이 새롭게 원익아이피에스의 가족이 되었다. 인사팀에서 원익조기전력화 교육 외에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2월 초 총 3차수에 걸쳐 '수시입사자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규 입사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업, 소통, 열정을 주제로 마인드 셋 정립과 조직 내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용인 KB증권 연수원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협업을 위한 소통전략 수립에서부터 유명 명사 초빙, 그리고 올림픽 정식 종목인 컬링과 무한도전에 소개

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조정을 실내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알찬 과정으로 교육생들의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종합 교육만족도 4.5/5점) 교육생 중 가장 최근에 입사했던 DS사업본부 고객지원팀 오용탁 사원은 “현재 근무지가 둔포이기 때문에 본사(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낯선 면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 많은 동료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원익아이피에스의 미래와 가치. 그리고 이곳에서의 나의 비전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며 교육 소감을 말했다.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앞으로 회사 생활에 큰 의지와 버팀이 될 동기를 형성하는 장이니만큼 매년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익머트리얼즈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진행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해 12월 2일, 오창의 한 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토요일 주말 오후 1시부터 머트리얼즈 임직원 및 오창 지역 주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여 명이 참여하여 김장용 앞치마와 장갑, 모자를 나눠 착용하고, 옆 사람의 방한 용품을 서로 챙겨주고 나누어주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시작했다. 점심 배추에 김장 속 버무리기, 김장김치가 완성된 뒤에는 포장 후 전달용 박스 포장 및 트럭에 상차까지 추위도 잊은 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이날 담근 김치(3,000kg)는 충북지역 아동센터 및 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머트리얼즈는 임직원 성금 1,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과 나눔의 모습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홍선희 과장(재무팀)은 “뜻깊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기쁘고, 앞으로도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식 대리(생산 1팀)은 “나눔수록 행복이 배가 되는 봉사활동에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런 기회를 통해 타 부서 동료들과도 친분을 쌓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다”고 전했다. 김장 행사 종료 후 고생한 임직원 및 지역주민, 어린이재단에는 수육 및 음료, 빵 등이 제공되어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자 전원에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행복을 안겨준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끝이 났다. 이번 김장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중인 머트리얼즈의 행복을 전하는 활기찬 행보를 기대해본다.



주 52시간 단축근무 본격 시행

원익머트리얼즈는 2018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新정부의 노무정책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단축 및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기존에도 머트리얼즈는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와 정부 지침을 따르기 위한 사전 조치로 2014년 자율 출퇴근제 도입 및 시행, 2015년부터는 연장근무 사전 승인 및 법적으로 허용된 초과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태 입력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관련 근무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해 운영해왔다. 현장에서 시행 과정의 부작용과 애로 사항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근로시간 축소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직원 설명회, 취업규칙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주 52시

간 단축근무를 본격 시행 중이다.

관련 가이드 라인으로 근무방식의 변화(업무 집중, 금연, 불필요한 야근 지양, 퇴근시 눈치주기 금지), 임직원 개인의 생활 패턴과 업무 몰입도를 고려해 최적의 근무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출퇴근 시간 자율제 정착의 노력 및 사전 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무 금지,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부서별로 적용하고, 근로시간 관리 관련 후속 조치로 현장직 인력 확대 및 조기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등 현장의 근로 현실을 감안하여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당사에 맞도록 설계 및 도입, 운영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직원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고용의 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하는 머트리얼즈를 기대해 본다.

구미시 장수기업 선정

원익큐엔씨는 지난 10월 11일 구미시로부터 구미 장수기업 현판 및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구미시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종업원 10인 이상, 업력 30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미시 기업사랑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미 장수기업 최종 12개사를 선정했다. 2017년 구미장수기업에는 원익큐엔씨를 포함하여 12개 사가 선정되었다. 구미시는 이들 기업에게 기업경영 운전자금과 시설 확충자금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융자한도를 적극 우대하고 구미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남유진 시장은 “한 기업이 20~30년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라며 “IMF, 환율위기, 고유가 등 모진 풍파가 구미경제에 강타할 때도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슬기롭게 극복한 명문기업이야말로 말로 구미시민의 존경받을 만한 기업성장의 롤모델”이라고 말했다. 35년의 업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장수하며 성장해나갈 원익큐엔씨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원익큐엔씨



2017년 송년의 밤 개최

원익큐엔씨는 지난 12월 19일 저녁, 구미 센츨리호텔 연회장에서 2017년 송년의 밤을 개최하였다. 한 해를 돌아보며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를 자축하기 위한 이 행사는 1부 공식행사, 2부 뷔페 만찬, 3부 송년의 밤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지난 한 해 사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 대표이사 축사 및 축배 제의가 있었다. 이후 호텔 뷔페로 맛있는 식사를 즐긴 후 본격적인 송년의 밤이 시작되었다.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후 직원 장기자랑 ‘복면가희왕’을 진행하였다. 신청에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복면가희왕은 총 7명이 참가하여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매너를 보여주었다. 유난히 치열했던 장기자랑의 1등은 멀리 기흥에서 와 ‘천년의 사

랑’을 열창한 세정사업부 영업팀 임형섭 사원이 차지하였다. 이어서 초대가수로 실력파 그룹 울랄라세션이 등장하여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 모두가 기다리던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였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 해였던 만큼 풍성하게 준비된 40여가지의 크고 작은 경품이 차례차례 주인을 찾아갔고, 많은 사람이 탐내던 1등 경품 빨래건조기의 행운은 품질경영본부 품질관리팀의 조봉현 팀장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행운권에 당첨되었든 당첨되지 못하였든 원익큐엔씨의 모든 구성원이 지난 1년을 함께 고생한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Family Day 2탄, 서울 고궁 투어

테라세미콘은 가족 초청 행사인 Family day 2탄을 개최했다. 상반기 Family day 1탄 행사가 서울 대공원 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2탄 행사에서는 가을 단풍 이 아름다운 서울 고궁으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고궁으로 향하는 버스 안의 풍경은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설레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이 날 행사 순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궁인 경복궁을 관람하고 점심 식사 후 인근에 위치한 창덕궁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전문 해설 도우미

의 인솔 하에 진행되었기에, 고궁 속에 깃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특유의 멋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화려하고 웅장한 경복궁과 소박하지만 단아한 매력이 있는 창덕궁을 비교하며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책 한쪽에 끼워 둔 단풍잎 처럼 Family day 2탄 행사가 임직원과 가족들 마음속에 깊이 저장되어 때때로 꺼내 보고 싶은 추억이 되기를 소망한다.



Culture Day 2탄, 토르

테라세미콘은 지난 10월 26일 단체 영화 관람 행사인 Culture day 2탄을 진행했다. 지난여름 스파이더맨을 관람했던 Culture day 1탄 행사가 직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기에, 하반기 조직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Culture day 2탄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다른 블록버스터 최신 개봉작인 토르: 라그나로크를 동탄 CGV와 천안 메가박스에서 관람하였다. 영화 토르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 씬과 재미를 선사하는 웃음코드가 잘 어우러져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영화 관람 전 후로 개별적인 소규모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에 임직원들이 모처럼 편한 분위기에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 10회 반도체의 날 장관상 수상

지난 7월과 9월에 박경완 상무와 김형석 전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지난 10월 26일(목)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제 10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테라세미콘 이승호 상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승호 상무는 고미세화/집적화 공정 대응 가능한 배치식 ALD장비 공정기술 개발 및 고생산성을 위한 배치식 열처리/증착 장비의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수상

은 이승호 상무를 비롯한 테라세미콘 기술부서 임직원들이 반도체 장비 사업 확장을 위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힘써 온 공적을 인정받은 뜻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호 상무는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했다고 주신 상이 아닌 더욱 잘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반도체 장비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겸양과 기술개발에 대한 포부가 돋보이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수출의 탑 및 동탄산업훈장 수상

테라세미콘은 지난 12월 5일 진행된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수출의 탑은 테라세미콘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출실적을 5천만 불 이상 달성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으며, 동탄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경 대표이사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이번 상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 등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상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수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은 테라세미콘이 향후에도 대한민국 수출의 탑을 높이 쌓는 우수 수출업체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017 송년회 개최

테라세미콘은 지난 12월 22일(금) 수원 노보텔 호텔에서 임직원 약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테라세미콘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은 ㈜테라세미콘이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 해였기에 임직원의 노고를 충분히 위로하고 성과를 축하하고자,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행사를 준비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공식행사에 앞서 포토존, 행운의 룰렛, 황금열쇠 뽑기 등의 사전행사 등을 통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다양한 경품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식행사 1부에서는 이재경 대표이사께서 축배제의를 이끌었으며, 뮤지컬 갈라쇼의 Opening 축하공연을 관람

하였다. 갈라쇼팀은 유명한 뮤지컬 대표곡들을 준비하여 화려한 안무와 함께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후에는 호텔 뷔페를 즐기는 만찬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 축하연회 시간에는 전문 MC의 진행 하에 레크리에이션 게임과 경품 추첨 순서를 이어갔다. 경품 추첨이 끝난 후에는 걸그룹 레이샤를 초청하여 Final Show를 즐기면서 흥겨운 분위기에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귀가하는 전 직원들에게 임원들이 송년 인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증정하면서 송년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원익

활기찬 한주를 위한 MCM 시행

2018년 1월 22일 아침 판교 사옥 7층에는 원익의 임직원이 MCM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MCM은 Monday Cheerup Meeting의 약자로 긍정적인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하는 원익의 기업문화 활동이다.

MCM의 시작은 백상천 대표이사가 직접 선정한 5분 내외의 동영상 시청이다. 이날의 주제는 클리셰(Cliché) 깨뜨리기였다. 클리셰란 진부하고 식상한 표현을 뜻하는 문학용어이다. 이 클리셰 깨뜨리기를 통해 성공한 시인들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도쿄의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사례를 들어 관습화 된 패턴을 깨뜨리는 작은 노력이 의외의 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어서 칭찬릴레이가 진행되었다. 칭찬릴레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 원익의 기업문화 활동으로 평소 동료에게 느꼈던 고마움을 적어 칭찬박스에 넣어두면 원익의 칭찬매니저 박영준 대리가 대신 전달해 주는 코너이다.

이날의 칭찬주인공은 유연성 과장, 윤우정 대리, 오준혁 사원으로 주인공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소정의 선물이 증정되었다.

원익은 대표이사와의 메시지 공유, 임직원에게 영감을 주는 동영상 시청, 칭찬릴레이, 생일 축하 등 10여 분간 진행되는 MCM을 통해 임직원이 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계 인문 속으로!

새 해 1월, 원익큐브에는 새롭고 신선한 동호회가 설립되었다. 직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인문기행'이라는 동호회이다. 화학사업부장 박세일 전무를 동호회장으로 하여 총 13명의 동호회원으로 설립된 '세계 인문기행'은 앞으로 월 1회 각 국가별 역사/인문/경제 세미나 개최 및 음식문화를 체험하며, 반기 또는 분기 별로 외국문화원 탐방, 전시회 및 공연 관람을 하며, 격년에 1회 정도 해외 인문여행을 계획하였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 인문기행'은 1월 첫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직원들이 처음으로 역사와 인문을 경험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다. 처음으로 접한 음식은 바로 중국 4대 특색음식 중 하나인 중경소면 重庆小面 (충칭샤오미엔) 이었다. 특이한 소면과 진득하고 매콤한 소스로 만들어진 중경소면

은 직원들에게 신선함과 새로움을 맛보게 해주었다. 음식만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역사도 함께 공부하면서 진정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회사생활 속에서 다른 국가의 역사를 공부할 기회는 흔치 않다. '세계 인문기행'이라는 동호회 설립을 통하여 직원들은 동호회 창단 목적과 같이 점차 글로벌화되어가는 시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다. 비록 첫 활동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뜻깊은 행사였다. 2월엔 우즈베키스탄 역사 탐방을 계획한 동호회원들은 벌써부터 역사 공부를 예습하며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원익큐브



씨엠에스랩

셀퓨전씨 2017 화해 뷰티어워드 1위

셀퓨전씨의 '레이저 썬스크린 100'이 <2017년 화해 뷰티 어워드 선크림/로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동일 부문 수상하는 쾌거를 얻은 것이다. '화해 뷰티 어워드'는 국내 최대 화장품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화해'에 소비자가 남긴 양질의 리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종합 뷰티 시상식이다. 제품에 대한 실 사용자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셀퓨전씨 담당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자사의 제품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썬스크린 100'을 비롯한 다른 제품들까지 모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KCAB)' 수상

씨엠에스랩(CMS-LAB)의 정통 더마톨로지 브랜드 셀퓨전씨가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더 현명한 소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셀퓨전씨는 이번 행사에서 피부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인

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셀퓨전씨는 자사 화장품 연구소에서 유해성분 및 글로벌 규제 성분을 배제한 최신의 포뮬러(formula)를 만들어왔다. 또한 임상 실험을 통해 피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외 병의원 피부 전문가들에게도 신뢰와 검증을 쌓아오며 무늬만 더마인 브랜드들과는 차별화된 성장세를 걷고 있다.



하늘물빛정원 '행복센터' 그랜드 오픈

하늘물빛정원과 시작을 같이 해온 매장인 참숯가마 찜질방이 2017년 12월 1일 '행복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미 효능을 입증하고 마니아층을 형성한 기존 참숯가마 찜질방은 유지하며, 힐링과 휴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힐링을 넘어 행복을 선사하고자 '행복센터'로 명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행복센터는 2층 참숯가마 찜질 층을 기준으로 아래 1층은 전신 안마, 편백나무 찜질기 등 찜질 전 이완을 할 수 있는 힐링 카페가 들어서 있으며 위로 3층은 수면, 영상, 아로마, 피톤치드 테라피 룸으

로 찜질 후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또, 1층과 2층 야외 테라스를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 지하 컨벤션 홀과 맞은편 럭셔리 글램핑장이 있어 단체고객 및 숙박 고객까지 패키지 상품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늘물빛정원은 행복센터를 중심으로 힐링을 넘어 행복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하늘물빛정원



청계산 등반



2018년 1월 5일 원익투자파트너스는 황금 개의 해라 불리는 무술년을 힘차게 맞이하고자 청계산 등반으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땀을 흘려버린

산길은 무척이나 험난했지만,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에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며, 전 직원 모두 무사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새해인사와 덕담을 주고받으며, 2018년은 한층 더 발전된 원익투자파트너스가 되기를 임직원 모두가 기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협력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밝아오는 2018 무술년에는 원익투자파트너스가 소망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임직원들의 평화와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행사

2017년 12월 15일 원익투자파트너스의 가족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행사는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분들이 참여한 자리로, 지난 1년간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화합을 다지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다 함께 저녁식사 시간을 가지며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행사와는 조금 다르게 임직원의 가족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만큼 분위기는 더욱 화목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뮤지컬 관람 장소인 LG아트센터로 이동하여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를 관람하였습니다. 벨기에의 황태자 루돌프와 마리 베체라의 사랑이야기로 마이얼링 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극입니다. 커튼콜 때는 슬픈 사랑이야기와 뮤지컬 배우들의 열연에 감동한 관객석에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크지 않은 공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게 느껴졌던 무대에 공연 관람 후에도 여운이 남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8년에는 더 즐거운 행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Dual Effect

Mechanical stimulation and
Drug delivery at the same time

Dual Speed

Reduce procedure time with
High-speed shot

Dual Nozzle

Needle-free and Multi-needle
in one Handpiece



100µm entry point



No Thermal
Heating Treatment



Minimal downtime

Vortex Technology
INNOJECTOR™
이노젝터

이노젝터는 주사바늘없이 공기압을 이용하여 솔루션을
피부 속의 원하는 위치에 회오리 모양으로 주입하고,
미세입자 형태로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 아모레퍼시픽 R&D센터 공동 연구개발
-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임상시험 완료
- 한국 식약처(MFDS) 허가 획득
- 비수술, 비침습 시술로 시술 후 일상생활 가능

INNOJECTOR
임상 참가자 모집

장소 : SD피부과 (www.sdderm.co.kr / 강남구 압구정 소재)

대상 : 원의 사육 임직원 및 가족 (20~50대, 성별무관)

시술 내용 : 트살, 리프팅 / 총 3회 시술, 3~4주 간격

- B&A 사진 촬영 및 자료 활용 동의 필요 (블라인드 처리)

※ 문의 : Aesthetic팀 이현주(Chloe@wonik.co.kr), 백성현(bsh88@wonik.co.kr)

새로 생긴 참신한 코너들 덕분에 내용도 풍부하고 읽는 재미도 가득한 사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기획을 통해 원익인들의 다양한 민낯을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익로보틱스 윤준호

이번 사보를 준비하면서 올리브영 입점, 화해 2년 연속 1위 등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하 임직원 분들이 사보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씨엠에스랩 박지현

조금씩 사보가 두꺼워지고 있어요. 원익인들의 구석 구석 찰라보는 소식들로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진 사보의 매력에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원익인들의 살아있는 숨소리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보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고를 아끼지 않는 스텝들과 제작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원익 사보가 백과사전이 되는 그날까지 GO GO~

위닉스 안희태

사보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다소 부담이지만, 앞으로 머트리얼즈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사보 담당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2017년 겨울호는 2017년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테라세미콘에서는 원익인상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상 소식과 즐거운 행사 소식 등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만큼 테라세미콘 임직원 일동이 2017년 한 해 동안 보람차게 달려왔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도 원익가족분들께 역동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테라세미콘의 즐거운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테라세미콘 최예란

사보에 볼거리가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원익 덕후> 시리즈는 가까이 있는 동료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콘텐츠여서 무척 흥미롭습니다! 지난 사보에 디제잉!!! 원익인의 매력! 뽀뽀 발산되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사보가 한 권 한 권 제작될 때마다 사보담당자로서가 아닌 원익인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앞으로의 사보도 원익의 뿌듯한 발자취만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2018년 새희망을 품은 채 매 해 발전하는 원익그룹을 상상합니다. 원익인을 한 회 한 회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익 이기복

다양한 정보와, 다른 그룹사의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원익엘앤디 조만현

사보 준비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오는 일인데,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입니다. 기사 작성과 인터뷰 준비 등을 하기에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는 것들이 귀찮고 힘들 수 있는 데도 흔쾌히 응해주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랑거리 넘치고 행복한 원익홀딩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안예인

매년 신년호를 준비할 때면 새해가 밝았음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올해도 원익 전 계열사의 즐겁고 기쁜 소식들이 사보 페이지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원익큐엔씨 이민희

분기 별로 사보를 제작하다 보면 시간도 빠르고 제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2018년도에도 더 뜻깊은 사보 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익큐브 윤세련

회사에 관한 좋고 새로운 많은 정보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 사보의 내용이 변화한 만큼 우리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보며 꾸준히 내실 있는 내용을 사보에 게재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공유 & communication 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 윤용인

리더를 찾아라.

우리 회사, 우리 팀, 남의 부서의 리더를 찾습니다.
‘우리 00님이야 말로 리더지!’ 확신이 들면 주저 말고
추천해 주세요. 추천은 추천일뿐 편집실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드립니다. 추천만 하셔도 선물을 드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추천인 에게는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콩트로 각색하여 드립니다.



밥 한번 먹어요.

임직원 간의 소통하는 모습과 맛집을 공유합니다.
같은 업무 외에는 만날 수 없지만, 코너를 통해 인맥도 쌓고,
몰랐던 분 • 아는 분과 더 가까워지며 식사하는 기회.
원익인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특별한 만남을 신청해 주세요.

마음껏 드셔도 공짜



보고픈 사람 신청해주셔도 되고,
혼자 신청 대환영입니다.
(3~4명 구성)
우리는 모두 원익인 이니까

P R E S E N T

E D I T O R ' s L E T T E R

원익인을 위한 선물이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소감이나 기억에 남는 글,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코너의 모든 문의 참여·환영,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 02-6674-7845
010-9011-5792

보내실 때 - 부서/ 이름/ 코너제목/ 전화번호/ 기재해주세요.

도시를 찾습니다.

소개되었으면 하는 나라, 도시.
혹은, 내가 가본 세계를 추천해 주세요.
꼭 찍어만 주시면 편집실에서 근사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트콘 2매

WONIK WORLD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선물이 찾아갑니다.

찾아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트콘 1매

53호에는 위 3개의 캐릭터를 찾아주세요

사보와 한몫이 되라.

사보와 함께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오리다.
혼자도 좋고, 누구랑도 좋고,
명명이라도 함께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그웨잇 분께는 케익 교환권
스투핏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